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 테로行動이繼續되면 最惡의境遇到來
## 現地情勢를視察하고歸來한 桑島東亞局長의報告

【長崎電話同盟】政府의 重要訓令을 携行하고 渡中 川越駐中大使에 傳達함과同時 陸海外三省滯中當局으로부터 詳細한 現地의情勢를 聽取한 外務省東亞局長 桑島主計氏는 十一日午後一時四十分 上海로부터 長崎入港의 日中連絡船 上海丸으로歸國 同五時出港의 同船으로 海路東上하엿다 氏는 着東後 即時 陸海外三省 首腦部會議의再開를要求하야 中國 滯中當局의意向及 現地情勢를 報告하고 重大化하여잇는 日中兩國交涉의全般에對하야檢討를 行하기로되엿다 同氏는船中에서 左와 如히 말하엿다

川越大使에 傳達한 訓令及川越蔣介石 直接交涉內容에 對하야는 一切말할수업다 川越大使는 勿論須磨南京總領事 及川第三艦隊司令官等會見、現地事情을 詳細聽取하엿는데 今回의 日中兩國交涉이 如何히 重大한가하는 생각을 기피하엿다 今後對中交涉이 圓滿히經過할與否에는 自己一個人의 생각으로는 此際斷言할수업스나 自己는 日中開戰이란 最惡한 狀態에는 가지안흘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最近抗日테로가 漢口에 頻發하고잇는데 南京政府가 徹底히 取締를 行치안는限 或은 最惡한境遇가 到來치 안흐리라고는斷言할수업다 英米兩國當局이 日中兩國交涉에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各種情報를聚集하고잇는 空氣는 充分推察되나 어느程度의 策謀를行하고잇는與否는 알수업다 倫敦타임스와 上海데이리·뉴-스等이同時에 中國에 同情的論評을 揭載한것은 英國政府의意向이 어느程度까지反映하고잇는것이 注目할바이다 勿論歸任과同時 陸海外三省首腦部에對하야 現地情勢의報告를 行할작정이다

### 蔣介石氏杭州行

【南京十日發同盟】蔣介石氏는十日뽀이스카웃트檢閱을爲하야 宋美齡夫人同伴 杭州에向하엿다 十一日杭州陸軍航空學校의檢閱을行한後 歸京할豫定이다

# 天皇陛下宮城還幸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陸軍特別大演習御統裁를爲하사 去月二十四日 宮城御發輦 御旗를 멀리 北海道에 進하옵시사 去二日부터 五日까지 大本營에 或은 野外統監部에 大演習을 御統裁、戰線을 親히御巡視、皇軍의鍊武를 嘉하옵시엇는데 그前後室蘭을 비롯하야 北海道의 東端根室에至하는 各都市에行幸 詳細히 北海道의 地方民情을 御視察、又拓殖開發狀況을 御巡閱、全部旅程 一千七百粁、十九日間에亘한 御日程을 御終了하옵시고 十二日 天機御麗히 宮城에 還幸하옵시엇다 此日天皇陛下께옵서는 午前十時五十分 橫須賀御發車의 御召列車로 正午東京驛御着 十九日동안이나 陛下께옵서는 長途의 巡幸에도 不拘하옵시고 些少한 御疲勞의 빗도拜承치못하고 龍顏이 끄시옵심을 拜承되며 惶恐하옵게도 玉步御輕快히「홈」에 나리옵시사 奉迎의 皇太后陛下御使大谷大夫 高松宮同妃殿下外御在東皇族殿下 廣田首相以下文武顯官에 御會釋을 下賜하옵시고 坂口東鐵局長의 御先導로 便殿에入御 大谷大夫에 拜謁의盼附를하시사 皇太后陛下로부터 御出迎의 御入事를바드시옵고 皇族殿下와 御對顔 御少憩後 宇佐美侍從武官長 鈴木侍從長 松平宮相 湯淺內府等 供奉員을隨行케하시사 略式自動車鹵簿로 龍顏御麗히 宮城에 御還幸하옵시엿다

# 川越張群兩氏 具體交涉開始乎
## 會談前途依然暗澹

【南京十一日發同盟】川越 蔣介石會見에서 決裂을免한 日中交涉은 兩三日中에 川越 張群第四次會談을 行하고本格的으로 具體的折衝을 開始할터이바 雙方共히 目下愼重히 對策을 考究하고잇다 國民政府로서는 日本側要求를 全面的으로 受諾할것은 目下國內情勢로 보더라도困難하고 日本側의 要求一項目을 解決할때마다 中國側의 要求一項目을 解決하랴는 새로운 意見까지 擡頭하는狀態이므로 交涉의前途는 紛糾가 豫想되고잇다 따라서 休日後 豫備交涉이 活潑히 行하여질것이나 어느程度의成果를 獲得할것은 일르더라도今月末로 될模樣이다 또 蔣介石氏는 一切를張群氏에 一任하야 어데까지던지 外交第一主義로 進行할 方策을取하고잇서 萬一交涉이暗礁에 오를 境遇에는 川越大使와 隨時會談을할豫定으로 되엿다

### 桑島局長十三日歸京 三省當局者會談開催

【東京電話同盟】川越、蔣介石會談에 備하야 有田外相의 重要訓令을 受하고去二日南京에 急行한 外務省東亞局長 桑島主計氏는 그使命을終了하고 十三日午前 歸京하기로되엿는데 有田外相은 即日同局長으로부터 現地情勢 川越大使의 進言等에 對하야 復命을 受하고 今後日中交涉에 備함과同時에 即時 外務、陸海三省事務當局會談을 開催시킬方針이다 同局長은 川越大使에對하야 有田外相의 訓令을傳達하고 今後交涉方針에對하야 熟議를 遂함과同時에 喜多 佐藤兩陸海軍 武官等과 會見하고 現地側의 見解를 徵하야 英米蘇等 第三國의 暗躍을 見聞하얏는데 今後 日中交涉의 微妙한發展에 應하기로 決定 同局長의報告內容은 各方面으로 期待되고잇다

# 伊太利政府又復 軍備擴充案發表

【羅馬十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緊迫한 歐洲의情勢에 對處하기爲하야 爲先陸海空三軍에 亘한 龐大한軍事豫算을 可決하엿는데 뭇솔리니首相은 十日閣議에서 左와如히 軍備擴充促進計畫을 發表하엿다

一、約二百의 軍需品工場을國家統制下에두고 勞働時間을 一週六十時間에 延長함
一、空軍海軍兵力을 充實 海軍은 六萬人增員함
一、一億四千萬리라의 豫算으로써 포-河流域 아드리아海沿岸、티레니아海沿岸、사르디니아、시실리兩島에 空軍根據地를新設함
一、九個의 大軍事工場에 最新式設備를施設하야 一般飛行機發動機를製造케함
一、카세르타航空學校學生의 定員을 現在의二倍로함
一、아디스아베바駐屯軍에 二萬八千의義勇兵을徵募함

### 國有國營論堅持 電力問題와民政黨

【東京電話同盟】電力問題에 關하야 民政黨은 十二日午後二時부터 特別委員會의會合을開催하고 今後審議方針及 準備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고 마침내本格的審議를開始하기로 되엿는데 小泉委員長의 意向은大體로民有國營 國有國營의 何者로決定된다드라도 其先決問題로 電力國營의 根本原則을主張 確立할必要가잇다고한다 따라同黨으로서는 近衛氏의 國營의原則만을 承認할려는데 其方法에 關하여는 委員三十名中에도 民有國營支持 國有國營中立派로 三分되여잇는바 過般近畿大會에잇서서 町田總裁의 國有國營論에 對하야 東京支部에서는 이에反對하야 櫻田木幹事支持를 決議하는 狀態임으로黨首腦部는 國有國營으로서 委員會의 大勢를 리드할方針인 模樣인데 黨의態度決定까지에는아직도 相當한迂餘曲折은 免치못하리라고觀測된다

### 行政機構問題 政府、軍部背馳

【東京電話同盟】過般陸海軍兩相으로부터 共同提案한 行政機構改革問題에對하야 政府軍部의見解는 左와如히 全然背馳되여 그處置如何에 依하야서는 政局의危機까지 招來할것으로 그進行은 重大視되여 政府首腦部는 그處理에 자못 苦慮하고잇다 即 廣田首相及 各閣僚의 意向을綜合하면 現內閣의 가장努力하고잇는 問題는 膨大하고 重要한 明年度豫算을 圓滿히 成立시키는데잇다 그런데 아직이에對한 豫測이 서지안는 今日 行政機構改革問題를 解決하랴는것은 明年度豫算編成上 多大한支障을招來할 것으로 政府로서는 어때까지던지 明年度豫算編成을 先決問題로 進行할것이오 軍部側에서 提案된行政機構改革은 正式으로는 明年度豫算이 成立된 議會終了後에 考慮할것으로하고 軍部兩相과 妥協할것이라한다 이에對하야 軍部側은 絶對反對의見地를取하야

一、國策綜合統制機關의設置、右는昭和十二年度豫算의 流用으로부터 即時實行할것으로 會計法第七條 規定으로 此를追加豫算에依할것은 絶對로不可
一、[illegible] 本問題는 昭和十二年度豫算 八月二十五日의 閣議에서 決定한重要國策項目中에 行政機構改革問題를 採決한以上 이方針에基하야 明年度豫算은 當然改廢된 新行政機構에 依하야 編成될것임

이러하고 政府가 明確히 明年度豫算編成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行政機構改革의 着手를 遷延할라는것은 庶政一新의 精神에 反하는것이다 따라서 近近寺內、永野兩軍部大臣과 會見하고 詳細히 軍部方面의 情勢를 聽取하고同時에 三相間에서 隔意없는 意見交換을 行하야 首相은 最後의 斷決을 할것이라 推測되는데 此際首相이 如何한 程度까지 軍部側의 强硬意見을 制御하야 妥協할가는것은 極히 그進行이 注目된다

# 稅制改革보다도 陸行政機構問題先決
## 陸相、實踐具體化企圖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其他重要諸問題의 具體化에 積極的熱意를 가지고잇는 陸軍은寺內陸相의 歸京을 契機로 다시 一層實踐的 段階에 들어가기로 되엿다 即陸相은 十二日歸東車中 梅津次官을 招致하야 不在中의 重要諸懸案折衝經過의 詳細報告를 聽取하고 同時에 今後에對備할豫定인데 寺內陸相이 抱懷한 諸懸案解決에 關한 意向은 如左한것으로 解釋되여 陸相歸東後의 活動은 注目된다

一、行政機構改革問題에對하야十三日 閣議前 廣田首相과 會見 首相의熱意를 打診하고그 斷行을 要望할것으로 推測되다 但 本問題에對한 軍部의意向은 極히積極的으로 參政院의 創設 省의 廢合(現狀에 副하야 急激한廢合이 困難이면 假護로서 商工農林 鐵道遞信 外務拓務의兼任)을 期必코 斷行할것이오 그實現이 不可能하면 明年度 豫算成立도 意義를 喪失함으로 豫算編成은 犧牲하더라도 機構改革의 斷行을 要望할것이라는 强硬意向인데 陸相으로서도 이見解의 無視는 不可能하야어대까지던지 首相에對하야 實行을 要望하고 可及的 速히 그實現을 期하고잇다 그리고 이實現을 본後에 다시 地方行政機構改革、議院法及 選擧法의 合理的改革을 期必코必要하다고 機會를보아 그意向을 披瀝할模樣이다
一、明年度豫算에 對하야는 大藏省이 軍部豫算을 目標로大斧鉞을加하야 可能한限 削除할意向인데 陸軍으로서도 明年은 新規要求四億八千六百萬圓中 滿洲事件費一億六千六百萬圓은 旣定經費이고 또明年度以後 實施될 在滿兵力의充實 航空兵力의增强、內地兵備의改善、作戰資料의 整備等基礎的準備를 하기爲하야 總額三億圓은 絶對不可欠이여서 그削減에는 應키어려울뿐아니라第二年度以降 六個年間에 亘하야 整備될陸軍充實費六億圓도 現下의 國際情勢에 鑑하야 緊急不得已한것으로 併合하야그 承認을 求할 方針이다
一、電力統制問題는 現內閣庶政一新具現의 熱意 乃至 實行力을 示할 가장조흔 機會이므로 十三日以後 三相會議에서 可及的速히 具體的結論을 어더 閣議決定에 이를것을 期待하고잇다
一、對中問題에 對하야는 外務海軍과 步調를 가티하야 外交交涉에 期待하고잇는데 中國側이 交涉을 遷延할 境遇에는 中國側의 術中에 陷入치안토록 嚴重監視하야 現地에서 情勢에 適應할 萬全의 手配를하고 어떠한 事態에도 適應하도록 警戒하야 靜觀中인데 陸相이 歸東後 外務海軍兩省과 다시 三省會議를열고 今後展開에 鑑하야 相當히 强硬한 意見을 開陳할 模樣이다

# 對內蒙古策을 蔣介石氏積極化
## 活佛을招致코懇談

【上海十二日發同盟】內蒙古全土에信徒를가진 章嘉活佛은 蔣介石氏의招請을밧고 十一日午後三時半 南京着入京하엿다 蔣氏가特히活佛을招致한것은 그信望을 對內蒙古策에備할라는것이라한다 蔣介石氏가 十三日杭州로부터歸京함을기다려 國府의對內蒙古策은 積極化할것으로推測된다

### 히틀러親衛隊 獨佛國境에到着

【스트라스부르十日發同盟】佛國當地에達한 情報에 依하면 獨逸히틀러의 親衛隊若干部隊는 獨佛國境警備軍 增援을 爲하야 十日國境에 到着하엿다한다

### 聯盟改組案審議 委員會에委囑

【쥬네브十日發同盟】聯盟總會는 九日夜會議에서 二十八人委員會를任命、聯盟改組案의 審議任務를 委囑하엿는데 同委員會는來十二月七日 第一日會合을開하기로決定하엿다

### 人事·集會

◀愼鏞頊氏(飛行士)十三日부터京城裡里間定期飛行開始人事次來社
◀李石薰氏(京城中央放送局放送部員)平壤放送局으로轉勤人事次本社來訪
◀[illegible]氏 論山郡連山面[illegible]里自宅에서[illegible]

### 八面鋒

◇ 護國團의 解散을 强制로 命令하고 墺首相이 獨裁强化에 向하야猛進。
◇ 北에 獨逸、南에 伊太利를 본바다 獨裁政治를 하는것이 時潮에 맛는것을 깨다른모양。
◇ 그러나、墺國에 나치스黨이 確立되지못하고 파시스트黨이 업는以上 兩國과 갓기는 難望。
◇ 그뿐아니라、獨의力、伊의體를 빌어서 墺國을統制하랴함은獨裁가아니라 他力主義。
◇ 左右兩派對立으로 佛國의블룸內閣이 또危機에直面。
◇ 國際情勢보다도 國內情勢로 머리를알흠은 佛國의歷代內閣이 맛보든苦惱이나 無可奈何。

# 日本眞意未判明限 米國은受諾不能
## 太平洋防備制限存續提議와 米헤랄드·트리뷴紙論調

【紐育十日發同盟】헤랄드·트리뷴紙는 十日紙上에서『太平洋의 要塞』라 題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太平洋防備制限條項存續의 英國提議는 日本이 希望하는것인데 英國은 只今日本을爲하야 火中의 栗을줍고잇는것가 危險한感이잇다 太平洋防備制限은 日本이中國獨立 主權尊重을 條件으로 海軍軍縮과同時에 一體가된 太平洋의 平和機構의 一部分인것을 米國이 認定하고잇는것은 英國政府도 熟知하고 잇슬터이다 그런데 日本政府는 이미九個國條約을 侵犯할뿐아니라 軍縮條約도破毁하고 建艦에熱中하고잇다 太平洋에서 勢力均衡破壞에 다름업는 이事實은 太平洋에 關係잇는 加奈陀濠洲等의 英國自治領의 熟知하고 또憂慮하고잇는바이다 英國은 何故로 米國에最大影響이잇고 英國에는거의 影響이업고 日本에는 全然影響이 업는 이防備制限存續을 提案하엿는가는 全然不可解이다 論理를一貫하면 英國의 提案은 東亞에서 巨大한 米國海軍을 歡迎치는 안흘것이다 漸次增大하고잇는 東亞의 暗雲을 排除함에는 何等의 利益도업는 英國의提案은 米國에서 好意로써 歡迎못바들것은 當然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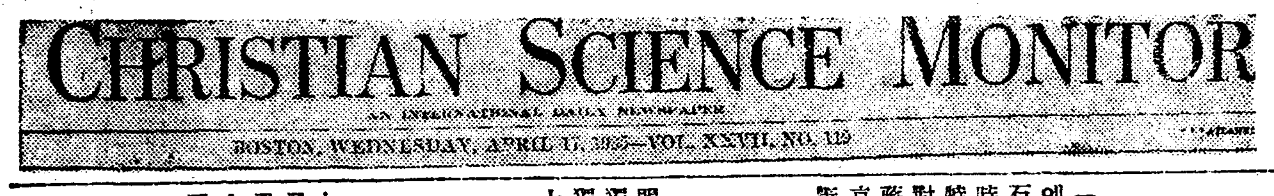
【紐育十日發同盟】米國의 國際問題評論界 最高峰을 립프스氏는 十日헤랄드·트리뷴紙上에 太平洋防備制限條項의 存續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 論述하엿다

華府條約 第十九條太平洋防備制限條項의 存續에關한 英國政府의 提案은 多幸히 現在日米兩國間에 何等 危機가 存在치안키때문에 卽決은 要치 안는것이나 將來의 問題로서 重要하다 이 條項은元來 東洋平和維持의 理想的機構의一部가되는것인데 日本政府가中國獨立及 商業上의 門戶開放을 尊重하는 代償으로 米國政府는 英國과 對等의海軍을 滿足하고 西太平洋에要塞를 建造하지안흘 旨를 約束한것이다 그러나 一九三一年 日本政府는 九個國條約을 侵犯하고 그後軍縮條約을 廢棄하엿다 米國政府는 日本政府의 右行動을 承認치안흐나 그러타고 此를反對할 意志도 업는 窮迫한狀態에잇다 英國政府今回의 提案은 右窮迫한 狀態의 繼續을 提議하는以外에 아무것도아니다 現在極東問題解決의 機가熟치안흔以上 事態를 以上에 惡化치안는 意味로 消極的效果가 잇슬지도 몰은다 그러나 米國政府로서는 問題는그러케 簡單치는안타 米國政府가 中國에干涉할意志가업는것은 明白하나 比律賓群島와는 아직 特殊關係에 잇고 日本政府의 野心程度도 不明한以上 米國政府로서는 此를 制하기爲하야太平洋에 海軍을 必要로할것이다 根據地가업는 海軍은 無意味하다

# 防備制限存續은 米에莫大한犧牲
## 크리스챤·싸이엔스·모니터紙論調

【보스톤十日發同盟】크리스챤·모니터紙는 十日紙上에『太平洋의 要塞』라란 題로 社說을 揭載하야 太平洋防備制限條約存續에 反對를 高唱하고잇다

華府條約第十九條는 九國條約及 海軍條約協定과 一體로 된 理想的東亞安定機構의 一部인데 日本은 好意를 어들수잇스나 알라스카、布哇를通하야 파나마에至하는 防禦環을 擁護할軍事基地位에잇는 알류산一帶의防禦施設은 時代에 뒤떠러지라하고잇다 比律賓要塞의 改築案을建議하고잇는 米國으로서는 大賛成이나 一九二二年의 華府條約의他部分을 考慮치안코軍縮의 防備制限條項만을 主張하는것은 米國에對하야 何等代償업시 이미九國條約을打破하고 五、五、三比率을 破毁한以上 第十九條는米國에不利함에도不拘하고 英國外務省이 그存續을提議한것은 日本의 要求에基한것이던지 又는 日本과共同하야써 米國을制限할라는 印象을밧는다 第十九條에 拘束되지안흘진대 가즌港을 所有한英國은十九條의存續에依하야 香港을 改善할費用을 省略할수잇고 一方 日本엔 許되히 莫大한犧牲을 要求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이 契機가되야 東亞全體의問題가 再檢討되다면 問題는이며 그러타면 米國은 大賛成이다




카트는 뉴욕 헤랄드 트리뷴紙表題(上)와 크리스챤 싸이엔스 모니터紙表題


리-드式送話器 돈벌기大王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振替大阪五二九八番)

耳鼻咽喉科 醫學博士 永日美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備完室院入

돈모히는조흔家庭工業 信用잇는最高의會社意氣잇는大事業躍進 第一 第二 株式會社 ◎偉大한三大工業

朝報案內
男女店員採用 男 十七歲內外普通學校卒業程度 女 二十歲內外女高卒業程度 但市內居住의確實한保證人二人을要함 面會時間은午前中에限함 京城府鍾路 洋品百貨店 德永

◎支局募集 (紙價一個月二十錢) (三錢切手添送하시면規定書를送呈함)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配達募集 市內居住者로要保證人本人來談 週刊 中央時報社 電話(本)五三二四番 振替京城四五二五番

朴家粉化粧品 박가분화장품 本舖 京城蓮池町二七〇 電話光化門二二〇 總販賣 京城鍾路四丁目 綿紗綿布都散賣商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電話光五七一七番

眼鏡은東亞醫院 專門 檢眼 眼科.齒科 京城 電光二四三六番 鍾路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朝鮮文學全集 古代篇 全十二卷 第一回配本 時調集 再版 內容見本進呈 中央印書館 京城安國町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七八一 電話光二五九五 每冊一圓八十錢 送料 今日出來 小說集 第三回配本開始

朝鮮總督府看守(朝鮮人)募集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大陸고무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電話本局(2)三三二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六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鍾路警察署前 고무靴界元祖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有名賣藥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補血强壯劑 參茸トニク 아침한잔이終日愉快 百貨店有名藥店에有함 5圓 2圓80錢

近者 本人所有 天安郡所在土地(稷山農場)에對하야 賣買之說을 無事不良之輩가 傳播云이오나 事實無根이오니 僉位난 切勿應劣하심을要함
昭和十一年十月十三日
京城府黃金町三丁目十番地 趙炳甲

十月十二日부터二日間 料金 階上 大人四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十五錢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낮一時밤七時開幕
新富座專屬劇團東劇座第一回公演 第二回
◇金鍵…作 戀愛劇 白薔薇 全四幕 前後篇同時上演
出演…申銀鳳 韓一松 卞基鍾 金英淑 徐玉汀 河芝滿 朴英泰 金小鳥 宋門平 李素然 鄭菊山 金貞玉
演出…柳原 裝置…鄭何普
次週豫告 金鍵…作 悲劇 光明을찾는사람들 二幕 옵스카스트 金鍵…作 史劇 紅娘과白夢 全一幕 主演…申銀鳳…韓一松
黃金町 新富座 電本2 五七

# 市內三百家具職工 同盟罷業을斷行

## 賃金引上等三個要求를提出

## 警察은雙方을呼出取調

경성서내에잇는 삼선여집 조선가구상(朝鮮家具商)의 공장에서 일을하는 조선가구수선직공조합(朝鮮家具修繕職工組合)소속의추색공(取色工)삼백여명이 결속하야지난십일오후부터다음과가튼 세가지의요구조항을공장주측에제출하고 그요구관철을위하야 일제히 동맹파업을시작하엿다 그요구는 임금삼할이상과 대우개선과 공장설비개량인데 공장주측의 단체인 조선가구상친목회(朝鮮家具商親睦會)에서는 다른요구는 모다 용납수잇스나 임금인상만은 절대로 용납수업다고 거절하야 방금파업은 지구전으로 들어가게되고잇는데 십이일아침 소관종로서고등계에서는 리룡문(李龍文)(二一)등 여덜명의 직공대표를 호출하야 방금취조를 진행중이며 친목회의 간부도동시에 호출중이어서 위선 이사건의내용조사에 착수하고잇는데 금후로쌍방의 항쟁이어떠케전개되여갈가는 자못주목되는바이다

### 日收八十錢으로는 生活해갈수업소

◇……罷業한某職工談

파업한 로동자의 말을드건대다음과갓다 일은청부제(請負制)로되여잇는데 평균하루에 일원수입이잘 안되는것에 보조(補助)한두명까지 쓰게되니 실수입은팔십전이겨우 됩니다 요새갓치쌀가가폭등되여 다섯여섯 식구를 그입금으로 어떠케먹여살릴수가잇서야지요 정말죽지안코라는 발버둥입니다운운

### 賃金引上은不能 그外의두要求는聽從하겟다

### 工場主側徐起灃氏談

### 薄利한家具商이니

공장주측의 가구상친목회 간부ㅣ가리말한다 인 서긔풍(徐起灃)씨는 다음과 다른두가지는 다들어주겟습니다만 임금이야 가구는 리가바한 장사입으로 도저히 조금도 올려줄수가업읍니다 이따업으로인하야 서울시내에 잇는 조선가구상이라고는 모다 그침오분하고잇습니다만 엽을의 리익이못되는 장사로 어떠케 밋지고 하는수가잇습니까운운

# 여프로보면恰似

## 強盜犯嫌疑者의橫厄

루보ㅣ서소문정(西小門町)이인조강도의 유력한 용의자 한명을 십이일아침에 체포한 서대문서에서는 십이일아침에 이르러 유일한희망을 부치고 피해자와 대질을시혀본바 체격과 여프로 본용모는 범인과흡사하나 정면으로볼때에는 전연틀린다고 공술하야 일상더센스가 일어낫다고한다 이리하야 사건발생이후 닷새가되는십이일까지 하등소득이업서 이사건조차 점점 미궁으로 드러가는모양이라고한다

# 滿洲國境監視兵

## 께·페·우와兩處서衝突

### 間島省의滿蘇國境線에서

【新京軍司令部十二日午後零時發表】 지난십일아침으로부터 가튼날 저녁때까지 사이에 간도성(間島省)만、소(滿、蘇)국경 두군데서 만주국경감시대와께·페·우대사이에 충돌사건이 잇섯는데 대략 다음과갓다

一、십일 아침다섯시반 고성(古城)대안 양관평(楊關坪)ㅣ구사평(九沙坪)중간 만、소국경부근에서 동일본대의 만주국경감시대가 국경을 순시하고잇든중 "께·페·우"부대로부터 갑작이 사격을바덧기때문에 이에 응전한결과"께·페·우"측은 상당한 손해를 바덧다。따라서 부상자까지 칠、팔명을 내엿다。그리고 만주국측과 및소련측은 각각병력을 증가하는한편 목하 감시대는 양교편에걸치서 병영안에 잇는"께·페·우"와 대치하고잇는데 그거리가 약오백미돌밧게 안된다。

二、십일오후두시가량되어 마적달(馬滴達)동남쪽에잇는 국경선제십이호 계표(界標)부근에서 만주국국경감시대가 국경을 순시하고잇든중 『께·페·우』의 사격을 바더서 감시대측에 전사자를 내엿는데 『께·페·우』측의 손해는 아직 알수업다。량편의 대전은 십일일오후다섯시반이래로 중지되고 지금 국경선을 끼고 오백미돌가량 서로 격해서 대치하고잇는중이다

三、일본군측에서는 각각 이에대한 만전의대응책을 강구하고잇다

### 玉童子를遺棄

십이일밤 열한시경에 시내종로 이정목 륙십삼번지 리근수(李根修)씨집 대문압헤 나혼지 여섯달가량된 사내아이를두가버리고간것을 그집주인이 발견하고곳 소관종로서에 보고하여왓다

### 養正運動會

시내봉래정(蓬萊町)에잇는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는 오는십오일오전아홉시부터 동교교정에서 륙상대운동회를 거행할터이라한다

# 京城裡里定期航空

# 十三日부터開通

## 一週一往復、料金은十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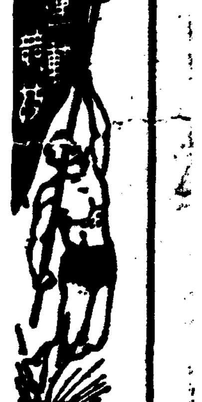
## "에야택시"에도需應

신용욱(愼鏞頊)비행사의 경영하는 조선비행사의 경영인 경성리리(京城—裡里)사이의 정기비행(조선동모코)는 드디여 십삼일에 항공을 개시하게되엇다 매주일 화요일마다 일왕복하기로되엇는데 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서 오전 열한시에 출발하야 오후령시에 리리에도착하게되고 리리에서는 오후한시에 출발하야 오후두시에 서울에 도착하게된다 료금은 십오원이며 정원은사명이다 매주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일본항공회사사무소에서 오전 아홉시부터 자동차로승객을 인도하여간다한다

그런데이 에야택시는 울산(蔚山)대구(大邱)리리 평양(平壤)신의주(新義州)함흥(咸興)청진(淸津)등 비행장이 잇는 곳에서전부터보나전화로서 수용한다하며 주문이엇을때에는 언제든지 한시간(삼인승)특실원이고만은 서울서라고 지방으로 갓든 약 사람이 목적지에 가서하로밤을 묵는하고 그이튼날 도로 그비행기를 타고도라오게될 경우에는 비행사의 륙숙비를 변상해주고 비행료금은 반액으로 할인하기로되엇다한다 이박게 유람비행료금은 경성상공일주에는 현재삼원이며 오원 인천(仁川)상공일주에는 삼원이다

# 周(普專)·黃(崇商)君優勝

## 綜合競技卓球選手權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卓球部는 十一日午後零時半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中等部、一般部를合하야 六十六名이參加한가운데 열리엇든바 다음과가튼成績으로 中等部에는 崇商의黃崇玉君(平壤崇實)이優勝하엿고 一般部에는 周洪君(普專)이優勝하야 制覇하엿다 (寫眞左는 周君、右는黃君)

**一般部**

【第三回戰】

崔明煥(總府)三ㅡ〇洪允基(普專)

金麗生(浦項)三ㅡ〇尹龍老(府廳)

朴銘德(鷄林)三ㅡ一李時鎭(鷄林)

洪龍煥(總府)三ㅡ二朴在徹(總府)

朴鍾秦(高商)三ㅡ〇崔俊英(京城)

【第四回戰】

崔明煥(總府)三ㅡ〇金麗生(浦項)

洪龍煥(總府)三ㅡ二朴銘德(鷄林)

【準決勝】

周洪(普專)三ㅡ二金鍾秀(鷄林)

周洪(普專)三ㅡ〇朴鍾秦(高商)

【決勝】

周洪(普專)三ㅡ〇崔明煥(總府)

**中等部**

【第三回戰】

黃崇玉(崇商)三ㅡ〇洪泰烈(一高)

張弘濟(昭工)三ㅡ〇朱東吉(崇商)

金秀錫(崇商)三ㅡ〇朴鍾德(一高)

【準決勝】

黃崇玉(崇商)三ㅡ〇金秀錫(崇商)

韓弘濟(昭工)三ㅡ〇李泰源(一高)

【決勝】

黃崇玉(崇商)三ㅡ一韓弘濟(昭工)

# 神競蹴球戰績

第十二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蹴球第四日의 中學部第二回戰及一般部第一回戰은 十二日午前八時四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는바 當日戰績은 다음과가트며 中等校第二次戰의 培材高普對新義州高普戰에드러가 倍新軍과對戰키로되엿다 (경기時間七十分)

**中學部** (第二回戰)

兩校選手 入場하야 이어서 一般部第一回戰으로 移行되엿다 【全州高普】 同日午前八時四十三分부터 全州高普對淸州農業戰은 全州高普의 勝利로 終하엿다

**全高2 淸農0**

(前0…0 後2…0)

| | |
|---|---|
| GK | 全李 |
| FB | 金李 |
| HB | 金金、李柳金李 |
| FW | ㅡ |

【淸州農業】 全有亮(?)李永善、金命燮(總)三氏審判下에 淸州農業先蹴으로 開始되엿스나 結局二對零으로 全州高普가 勝利하엿다

**一般部** (第一回戰)

**平實2 漁蹴0**

(前0…0 後2…0)

【第一次戰】 漁大津蹴球團對平壤實業蹴球團戰은 同日午前十一時五十二分부터 李永善(球)、金東秀、全有亮(總)三氏審判下에 平實先蹴으로 열리엇든바 結局二對零으로 平實勝하엿다 (경기時間七十分)

【平壤實業蹴球團】

| | |
|---|---|
| GK | 金 |
| FB | 張安 |
| HB | 鄭金韓車 |
| FW | 李李金 |

【漁大津蹴球團】

# 比律賓에颱風

## 人畜의被害多大

【마니라十一日發同盟】 지난 십일일오전 비률빈 여송도(呂宋島)를 습래한 태풍은 네시간동안이나 맹위를 부려서 하천(河川)이 범람하야 가옥은 물론이고 농작물은 전멸하엿고 가축도 익사하엿스며 도로는 무너지는 참상을 정하엿다 십일일오후 『마니라』에도달한 정보에의하면 사자가오십명 행방불명이 사백명이라한다 그런데 이번태풍은 여송도를떠나가 동쪽사백오십마일의 해상에출현하야 북북서로 향하야 진행하고 잇는데 대만류구방면에는 태풍의진로범위에 들어잇는모양이라한다

# 同一한地點에서

## 脫線顚覆三重奏

### 生氣嶺、鏡城間汽車의受難

【淸津支局發電】 십일일오후여덜시십분 함북생기령—경성(生氣嶺—鏡城)사이 원산(元山)기점오백사십키로스백미돌부근에서성진(城津)을떠나 청진(淸津)으로가든 화、객(貨客)오백오십삼호 혼합렬차가 탈선되여 전복되면서 화물차 두어대가 깨여젓다 이것을 구원하기위하여 청진으로부터 달려가든렬차도 역시전복되엿고 또십이일아침 여섯시십오분 청진을떠나 신북청(新北靑)으로가든 렬차도 가든지점에서 탈선이되여 몹시혼잡은 복잡을 이루고잇다 삼중주(三重奏)의렬차사고와함께 새선로를노코 림시로 통행하고잇는중 원인과손해는 방금조사하는중이다 그리고 각렬차는모다 련락되고잇다

# 【朝共】 主義者同盟事件

# 卅七名明日公判

## 檢擧以來滿三年에一時檢擧가千餘名

### 淸津法院法廷에서

【咸北特派員(?)】 소화구년십일월배래 함북(咸北)일대의 구석구석이 벌려잇는 공산당재건 비밀결사가 혹발각되어 지하조직전체가 발로되야 한때세상을 놀래인 조선공산주의자동맹사건(朝鮮共産主義者同盟事件)은 함북도내각지에서 전후 이십팔명의 관계자(檢擧者)를 내이고 경찰의 한동안 경찰망으로부터 비밀과 위로지수가 속화 공산당이 관계된 것임으로 방금 사건의 사십여명이 수사와 취조를 거쳐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 예심계(豫審係)의취조를 받고 지난오월이십오일부로 예심중결(豫審終結)이되야 현포(戶田)재판장주심과백(白)관선생(管生)배석판사와 상(相)良검사입회로 제일회공판(公判)이열리게되야 치안유지법 위반(治安維持法違反)절도(窃盜)、상해(傷害)범인은닉(犯人隱匿)주무 리게되엿다는바 이사건의 내용을 드러내며다음과가다

【東京電話同盟】 이번문전(文展)제이부에 새로입선한 사람가운데에 반도출신의 입선자는다음과갓다

# 吉鎭燮氏等三畫家

# 文展二部에入選

吉鎭燮(東京) 原籍 平壤府上水口里三三

沈亨求(東京) 原籍 京城府寬勳町二二

金仁承(東京) 原籍 開城府北本町八三

그중 김진섭씨는 평양고보를 마치고 작년전에 동경상야미술학교에 입학하야 작년에중어행는데 이번입상한 그림은 모자(母子)를 그린것이라한다

(사진은 길진섭씨)

# 南昇龍君鄕里로

## 嚴父贊淑氏同途로

### 十一日東京發順天에

【東京支局發電】 세계올림픽마라손에 삼착으로 입상하야 크게 긔염을 토한 남승룡(南昇龍)군은 동경에 처저서 취하할 예정이엿스나 엄부(嚴父)의 명령으로 일단귀향하기로되여 십일오후일시반 동경역발차로 부친 찬숙(贊淑)씨와함께 동경을 떠나 향리 전남순천(順天)으로 향하엿다

### 南君下關通過

【下關電話同盟】 귀향의도에오른 남승룡(南昇龍)군은 부친찬숙(贊淑)씨와동반하야 십일일오전 여덜시 하관에도착하야 엽우한옥(丸屋)려관에서 피곤한몸을 쉬이면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제가입상한것은 좌등(佐藤)코ㅡ취의힘이엿습니다 사년후동경대회에도 출전하야 분투하겟습니다 제가신고된신(足袋)이 외국선수들사이에 문제가되니만치 동경대회에서 이긴다면 외국아들도 그신을신게되겟지요


東光醫院

專門科目 內科 小兒科 X光線科

◎特設 ◎往診에應함 入院診療 隨時 呼吸器病無料相談

京城府黃金町一丁目(大和橋近處)二八四番地 電光四〇番

東光醫院


# 紅塵을훨훨털고

# 爽郊에一日淸遊

## 깨가쏘다질듯滋味잇는順序를마추고

## 黃昏을띄고서울로!

### 家庭婦人들의노리대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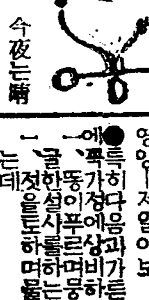
본사주최제삼회가정부인들노리대회장은 안양역(安養驛)에서 서쪽으로 거려서 약십분에닷는곳이다 본사사원들의 일행은 아홉시이십칠분 역에도착하자 장사의진(長蛇陣)을니리고 회장으로향한다 수백주의밤나무가 여기저기에 호려저잇는넓다란풀밧우에 남어잇는이슬방울은 우리들의발을 어루만지며 나무사이에걸려잇는 청황적색의 본사기는 우서 우리일행을 환영하는듯하엿다 삼삼오오짝을지어 본부(本部)압해자리를 정돈한 일행에게는엿 핫시가 조금지나자 이날의"노름"첫재"프로"로 수수꺼끼가 시작되엿다 『노새의 아버지 어머니는 무어인가』하는문제의대답이 사시며리사람이만흔것도우습거니지만"당나귀와말"이라는 답안으로 명예의첫재 수상을한이는 시내 내자정구십이번지리혜자(李惠子)씨엿다

세차례의 수수꺼끼와 네차례의경주가 끗나자 질거운 점심시간이 와다 이날을 위하야몃솜을 알두고미리부터 손씨에솜씨를 더한 밥맛이야 더욱가람을 높고맑은 하늘아래에서는 그야말로 맘할수업는동이이다 오후"풀린"은 두시부터 각

이얼기(各人一技)로 시작되여 가정부인들의 용감하고도 아릿다운재담(才談)독창은 만장을 포복절도케하엿스니 흥미와 우슴의 일순에독점하야 이모임의한 이채(異彩)이엿고 그뒤를이어 밤죽기 보배찾기가잇섯스니 보배찾기야말로 전프로가운데에 호화판(豪華版)이엿다『전경치마저고리』의 보배를차즈이는 황금정삼정목 삼십구번지 리씨(李氏)(?)라는 늘근분이엿고 『침정반상』과의발견자는 대평정(大平町)십사번지의삼호리은순(李恩順)(?)이란 젊은부인이엿슴도이날을 자미잇게하는 대조이엿다

이와가티 모든 장종(樂曲)과 가지가지의 근심걱정을 멀리떠나 고요한들에서 깨가쏘다질듯이재미가잇서서 언제가는줄도모르게하로를 보내엇는 본사에서 나누어드린밤을 한손에들고경성역에 도라오니때는여섯시이 십분 겨울날이가까운저녁해는 벌서 황혼(黃昏)을깃지하고 반듯한 포도(鋪道)우에는 불빗치 반짝하엿다 하로의 청유(淸遊)를 연하야 진것을 이제야깨다르니 에 사지가 갈블힘고 머리가시 려무것은 하로날이요 질고먼것은 다음의"돌노리"라고모두가 손삭이고 섭섭한 작별을하엿다

(사진은 청유하는가정부인네들)



# 天氣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晴 明日도晴、氣溫은冷却

昨日最高 二四度三

〃最低 一一度一

今朝最低 一〇度

今日正午 一九度

# 웃지못할世相

## 法律을모르면

## 뜻박게悲劇을惹起

알미운 世相이다 東京을 비롯하야各地의裁判所를 보면 부러오는것은訴訟事件이다 懸當의일수잇는데 法律을 아지못하겟때문에 저버리고 우는사람이 적지안타 其中에도 第一만흔 金錢의貸借 商取引이고 조치가한件 戀愛事件이다 적은힘노 裁判所에떠를 끼치도며 一노부터 十까지 法律의힘을빌리는 世上! 世上에는 조금틀리는데서 事件을 이르킴 만흔貸借關係는往往히잇는고로 日常法律을 아러두고 事件이이러나면 곳應用하면 자못便利하다 最近東京市小石川區大塚町三十六番地의 大東社書店으로부터 法律百科大辭典」이라는難問題가 解決되는 알기쉬운法律書가 發表되엿는데 一般素人에는 絶好한書籍이다 同書는 從來어려운法律書와 달너서 實際問題를取扱햇슴으로 金錢의貸借는勿論民事、商法、土地家屋、離婚相續、戶籍等의難問題를簡明히 解決하는至極便利한册임으로 同書一册잇스면 辯護士는無用일것이다 더구나同書는 四百十八頁의大册이나 定價一圓이것은法律의民衆化라는意味로다못一圓五十錢으로 販賣하고 잇다 希望者는 前記大東社에 葉書로 申込하면 곳送本하야 주고 代金은 册到着後에 支拂하기로한다

# 高血壓·神經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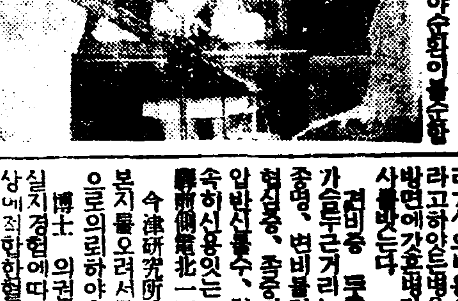
# 中風·腦溢血

## 原因이되는濁한

## 血液을淨化하면

## 낫는다

### 다니아가治不



(左端研究中의今津博士)

# 견비증、고혈압、뇌일혈등으로너머

# 진반신불수를이갓치하야곳치다

(숨쉬임으로 유명한有賀博士는 여서생기는데 정혈의 근원이 되는 혈액을 맑게하고 이병의 원인을철저적으로 연구한결과 가장효과가잇는 다신경쇠약 리별、매독、변비、위장병、신장 병、당뇨병、심장병、두통、부스럼、대하、냉 증、과로진통 등으로 ...

소생혈압이놉고견비증、두통이명가슴이답답하고 심려하고각가지로치료하엿스나효과를 못엇고끗내는하게지나든중 돌연뇌일혈로좌반신불수、언어불명으로극난하야 그후선생의약으로낫다는말을듯고조속ㅣ보아지 금에는부자유업시로동하는몸이되여깃버하고잇다

견비증 두통이명、눈이흐리게 가슴두근거리는것、졸도수족요통 중풍、변비불면 신경쇠약 서식 혀신중、좌중비、동맥경화、고혈 압반신불수、혀굳음이잇는자는 속히신용잇는 大阪市阪急線三國驛前側籠北一四五

今津研究所로가거나、조선일보 본지를오려서주상에표를하야서신 으로의뢰하야속히전쾌하도록하라

博士 의권위잇는 연구와귀한 실지경험에따라본인의 병감과증 상에적합한혈액정화료법과 식음 양생긔타주의 사항을상세친절하 익려준다

(大阪市東淀川區)

보아젤「에」똥똥우는사설、풍경지우기간

「젤아보」 三十錢 一元五十錢

●특히 폐병과가슴 허약한자에게 제일아이 효험이 잇다

의주풍조위

京城藥局

本舖 京城府鐘路一丁目

振替京城八三六七 電話光8二二七四



# 藥 御問屋

營業案內中越進呈

振替京城一六八番 電話本局四〇九四・一〇六八 四〇九三・四四四八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 新職業

# 醫療師養成

電氣

特別臨時講習

時代的電氣

醫療學全科

◎責任傳授

現代科學이나흔世界的大發展의電氣醫學의全科를短時日로責任傳授함

朝鮮唯一 講習學費 最廉오라

今回는特히分院長으로서醫術의傳授를함 卒業生은獨自開業의實力과分院長의資格을與함 本院은模範的인곳이잇스니 往意하라

內容規定書無代呈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朝鮮高等電醫講習院



# 腫症仙藥

# 趙膏藥

效能 ○유종 ○당종 ○모든습종 ○모든창부스럼 ○발찌 ○당결니는데 ○우창 ○낙상 ○어혈 ○견비 ○요통기라류명 ○종독증

藥價 十五錢 二十錢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합니다

京城鍾路町

本舖 天一藥房

趙膏藥과 腫氣! 腫氣에 趙膏藥은 不可分의關係를가지고잇습니다 腫氣의 大小를 不計하고 腫氣어떤데 부처서 趙膏藥을차즈시요 속히낫고나은後痕跡이업는것이 趙膏藥의 特長이올시다



ひえ吹出もので なんぎする人

냉독부스럼으로 고생하는 분

腫毒掃丸 すぐ 諸毒を排泄させ

중독소화을 잡수시고 제독을배설하여

藥屋にあり 五円十円 廿円

약방에잇슴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에注文하시면遞送함

# 結核性体質者
# 衰弱、貧血患者
## 療養의必需劑

**다른榮養劑에比하야 優秀한獨自的作用**

ポリタミン은 牛乳蛋白을 原料로하야、胃腸消化와함께 酵素로써 消化된것이며 血液原、筋肉素、發育素、食慾素、活力素、호루몬素等各種의有要아미노酸을 豊富히 含有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微量의아미노酸을包含한것이나、原料그대로의 粗雜한 未消化性榮養劑와는 그本質에잇서서 全然딴것입니다。

(1) 消化를 要치안음으로、胃腸이 弱한분에 榮養價値가 큼니다。
(2) 細胞를賦活하여、新陳代謝를 良好케하며、抗病力을 增進합니다。
(3) 消化液의分泌을促進하며、食慾을增進하며、胃腸을튼튼케합니다。

# 補血滋養强壯
## 高級아미노酸綜合製劑
# 포리타민
# ポリタミン

四百五十名醫學博士の實驗推奬

武田發賣品

**自然治癒力을强盛하게**

어떠한病을 治療함에도 우리의 身體에 따르는病原을 익일힘──을無視하여서는決코完全한效果는 期待키 어렵습니다。

特허 肺結核患者와 呼吸器가弱한 腺病質의所謂「結核性體質者」와 衰弱·貧血患者에는 이런天賦의힘을 튼튼케하는것이 무엇보다 重要합니다。이것의活用은 醫病의 要訣입니다。그러면 이런힘을 增進식힘에는 어떠케하는것이 조흘가? 그에는 榮養의充實이 잇슬뿐입니다。

**體蛋白의補給이急務**

一般에 肺結核其他의 慢性病患者에잇서 가장重要한 榮養素는、血液과筋肉의 構成原인 蛋白質이어서、이것의 不足은 當然衰弱을 招來、自然治癒力의 減退를 招來하게됩니다。牛肉과 鷄卵等의蛋白質의 推奬되는 理由도 玆에잇지만 蛋白質은 그대로榮養이 되는것이아니라、胃腸에서 消化되야、完全히 아미노酸이라하는 要素로 變化되지안흐면、絕對로吸收同化되지안코 따라서 消化가 나쁜분에는 蛋白質도 體成에利用되지못합니다。

그리하야 蛋白質보다도 그消化體란 아메노酸의분에는 더욱效率이 놉흔것입니다。

ポリタミン이 結核性體質者와 諸病衰弱患者에 愛用되고엣는것도、한가지 아미노酸의 綜合製劑임으로써입니다。

| | | |
|---|---|---|
| 衰弱、貧血、虛弱、榮養不良에 | (液狀單味) ポリタミン | 小瓶(一圓[illegible]) 中瓶([illegible]) 大瓶([illegible]) |
| 虛弱小兒、黴毒疾患、佝僂病에 | ヨード・ポリタミン | |
| 惡性貧血、神經衰弱、皮膚病에 | アルゼン・ポリタミン | 小瓶(一圓六〇) |
| 健胃、後衰病弱、産前産後에 | キナ・ポリタミン | 中瓶(三圓六〇) |
| 肺結核、肺尖가다루、肋膜炎에 | グアヤコール・ポリタミン | 大瓶([illegible]) |
| 小兒、婦人의病弱、携帶用에 | ポリタミン錠 | 小瓶(一圓二〇) 大瓶(二圓) |
| 糖尿病의 榮養料、滋養注腸에 | 粉末ポリタミン | 100瓦(三圓五〇) |

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함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堀上通　大五製藥株式會社

學生美展優選入賞作 花鳥 [illegible] 一 風景 [illegible]

家庭

# 갑싸고 간단한 왜비누의『미안술』

## 미국 녀학생간에 류행하고잇다 단지 품질만은 조흔것

최근 미국서는 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미용원(美容院)에서 『비누미안술』을 만히 떠들고들 잇습니다. 『비누미안술』이란 조흔 비누를 보드러운 솔에다가 무치어서 살스결을 곱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미안술은 살스결만 곱게 할뿐이 아니라 녀학생들에게 가장 만흔 여드름과 개기름의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됩니다. 떠도 말고 일주일에 한번씩만 하더라도 얼굴이 아조 딴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미국녀학생들의 살스결이 왜 그러케 고우냐 하면 그 미안술을 리용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네들은 흔히들 크림이라야만 살스결을 곱게 하는 줄 알지만은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야 비누도 비누나름으로 나뿐 비누는 살결을버리게 됩니다만은 조흔비누는 결코 그러치를 안습니다 아니 조흔 비누야 말로때도 잘 빠지고 살스결도곱게 하야 일거량득의 조흔 화장품입니다. 크림칠하가되야 가는 요사이는 심지어 비누와 물로다가 얼굴을씻는 것부터 나쁘다고까지떠드는 사람들이 잇지요만은 질이조흔 물과 비누에 살스결을버릴 렴은 조금도 업습니다. 물도 수도스물이면관계치 안코 더구나 지금가튼 가을철이고 보면 물의 온도가 노파서 별다른 해를 밧겨치 못 합니다. 오즉 물로 씻은 뒤는 반듯이 부드러운 수건을 가지고 몸스긔를 말짱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결코 그대로 지체하거나 말리어서는 되지 안습니다. 그러고 십칠팔세의 녀학생들은 아침저녁으로 두번쯤 세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침 한번만은 재미가 적습니다.

×

비누는 알카리성에 의하야 때가 빠지고 크림은 류동(流動)파라핀에 의하야 때가 빠지는데 류동파라핀보담은 알카리라야 훨씬 때가 잘 빠집니다. 그러키 때문으로 크림에 안 빠지든 때도 비누로는 대개 빠지게 되는 것이 랍니다. 늘 밧그로 몰아다니며 몬지를 쏘이는동시 피부로부터 분필물(分泌物)도 유난히 만흔 녀학생들이 크림으로만 때를 뺄 수는 업스니까 비누를 쓰시는것이마당합니다. 크림만을 쓰다가는 때가잘 안지고 처저서 그것이 털구녁을 막습니다. 그래서는 고만 검고 보기 실흔 여드름이되야 버리는 것입니다. 비누로 세수하는 것쯤이 어째서 여드름이나 개기름의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말슴한그 이치만 잘 생각해 보신다면 아조 빤한 노릇이 아니오니까? 그런데 물의온도가 체온보담 나저서는털구녁이 오그라들고 또 노파서는 넘어 버러저서 다조치 못 합니다. 그저 체온과 근사한정 도라야 합니다.

×

이때까지 말한 비누는 물론 왜비누입니다. 왜비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종다종의 여러가지가 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연히 갑싼 것을 취하야 나뿐 것을 사서 쓰시는것은 도리어 불경제입니다. 차라리 딴 화장품을 살돈을 그리로 드리더라도 비누만은 조흔 것을 사서야 합니다.

# 마른솔닙 긁어다 이불요의 솜맨드는 법

## ―솜갑 비싼데 아라둘만한것― 게다가 물것까지 안꼬여

겨울이 가까워오니 산에는 솔닙히 깔여질것입니다 마른소나무입사귀는 긁어다 불에때는것밧게는 다시쓸곳이업는것 가트나 실상 그것을가지고 솜대신으로 이불속에 너흐면 조흔것입니다

소나무 입사귀를 이불솜으로 넛는방법은 마른소나무입사귀를 너른가마솟에가득너코 석회나 양재물이나 적우간알카리성질을 가진 약을너흔다음 오래동안 삶습니다 이러케하면 소나무입사귀의 대부분이 용해(溶解)해버리고 섬유(纖維)만 남게됩니다 그섬유를 잘말리면 보드러운 솜처름됩니다 요나이불속에 솜대신으로 너흐면 솜보다협신 가벼울뿐안이라 이나빈대가튼것이 절대로 붓지안습니다 또한 솔닙냄새도 나지안코 며 다만얼뜻한 향긔만어게됨으로 여간조흔것이 안입니다 한번리용해보시지요

# 第二回 市內私立初等校聯合學藝會

參加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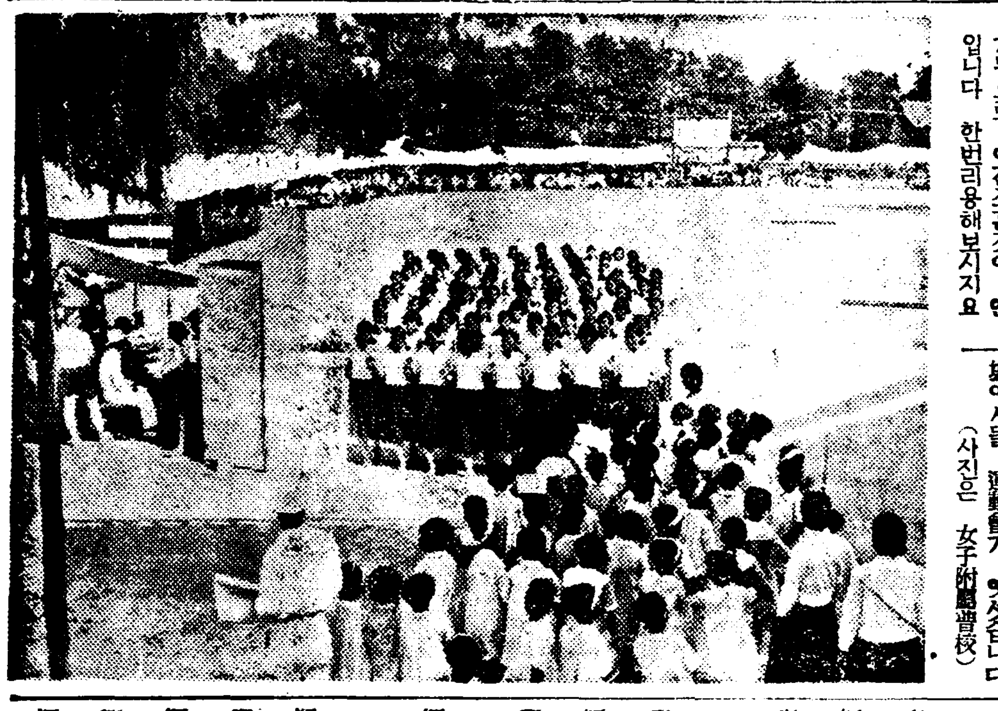
| 學校名 | 技藝種目 | 學校名 | 技藝種目 | 學校名 | 技藝種目 |
|---|---|---|---|---|---|
| 三興普通學校 | 唱歌 | 和光普通學校 | 唱歌遊戲 | 永信學校 | 唱歌 |
| 協成普通學校 | 唱歌 | 輔仁普通學校 | 談話 | 攻玉女學校 | 唱歌 |
| 同德女子普校 | 唱歌遊戲 | 華山普通學校 | 談話 | 蓮花峰女學校 | 唱歌 |
| 啓星普通學校 | 唱歌遊戲 | 阿峴女子普校 | 唱歌 | 誠信女學校 | 唱歌 |
| 攻玉普通學校 | 唱歌 | 槃泰院普校 | 唱歌 | 光熙培明學校 | 唱歌 |
| 加明普通學校 | 談話 | 新明學校 | 唱歌 | 恩露學校 | 唱歌 |
| 長薰普通學校 | 唱歌 | 桂山普成學校 | 唱歌 | 東光學校 | 劇 |
| 培花女子普校 | 唱歌 | 均明學校 | 唱歌 | 東明學校 | 唱歌 |
| 東大門女普校 | 唱歌 | 興仁培材學校 | 談話 | 合 | 二十六校 |

時日 十月十四日午後一時

場所 府民館大講堂

主催 京城私立初等學校懇話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師範附屬運動會**

京城師範과 女子師範各附屬普通學校에서는 지난十日 同校運動場에서들 運動會가 잇섯습니다 (사진은 女子附屬普校)

兒童劇

# 행낭아이 (全一幕)

③ 金虎俊

金서방「나리 지금오십니까」

順子아버지「응 저 김서방 저녁찬이 업스니 저ー시장에가서 생선이나 좀 잇나보고오게 돈은 안에가서 달내게」

金서방「네!」(다시 돌아 上手로 들어간다)(聖玉아버지 下手로들어오면서 順子아버지인사하며)

聖玉아버지「나리 지금 들어 오시는 길입니까 저 아까요 양복입은 양반이 오서서 나리를 찻다 가섯습니다」

順子아버지「응? 양복입은 사람? 그래 무슨일로왓데」

聖玉아버지「네! 저 봉의정산 데든가요 전번 말슴드린 광산인가요 금캐는 그광산에 대해서 만나려 왓다구요」

順子아버지「응 그럼 알엇서 그런데 자네 드르니 어린아이들을 퍽 잘 때린다고 하데 그래」

聖玉아버지「아니요 그제 말을 안드르면 화가나서 좀......」

順子아버지「그러지말게 그것들이 어린게 뭘 아나 자네를 생각해보게 다ー어려슬땐 그러케 자랏네 그리구 자네가 힘드려 일하는것도 다ー그것들을 바라고 하는게 아닌가」

聖玉아버지「저도 참 귀엽기는하지만......」

順子아버지「저 자네아들 泰植이 말이야 오는삼월이 졸업이라지」

聖玉아버지「네참 걱정입니다 보통학교라구 겨우 마치우고, 한숨쉴가 햇드니 또 중학교에 보내라고 하는군요 제게 무슨 힘이 잇서야지요 선생님께서도 요새 늘와서 재조가 잇스니 꼭보내도록 하라구요 참......」

順子아버지「나도 오늘 어선생만낫는데 걱정을 하드구만 공부는 어번에도 만저이라고하하 참 재조가 잇는 모양이야」

聖玉아버지「재조가 잇스면 멀 합니까 그게 다ー애비 울리는 거지요」

順子아버지「그러케 한할것 무엇잇나 조곰도 념려말게」(聖玉 上手로나온다)

聖玉「아버지 여기 게섯수」(順子아버지께도인사한다)

順子 아버지「오ー聖玉이냐 점심 먹엇니?」

聖玉「네 지금 막먹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아버지 오빠내일 원족간데 그런데 전차비 십전달내요」

聖玉아버지「원족? 또 학교에서 간다니 가야지」

順子아버지「그럼 보내야지 그럼어서 들어가 보게」

聖玉아버지「네!」(聖玉이도 인사하고 아버지를따라 上手로退場)

順子아버지「하하 참 나도 이전에는......(順子들노는것을 보고)順子야 너의들 거기서 무엇하니」

順子「지금 오시우 아버지」(뛰여나오며)

慶伊 玉順「(인사하면서)順子아버지 안녕하십니까」

順子아버지「응 너의들왓구나 順子야 점심들 먹엇니?」

順子「아니 좀더 놀다가 먹어요 아버지 과자사 왓수」

順子아버지「집에 잇는데 무슨 과자를 또사」

順子「아니 집에 업는과자 말이야」

順子아버지「집에 잇는것 다ー먹고 도사지 자 다ー들 들어가 점심 먹자 응」

順子「실허요 아직 배곱흐지안어 그러지(동모들보고)」

慶伊 玉順「응 좀 놀다먹지」(順子아버지웃으면서보며 上手로들어간다)(멀리서고요하게聖玉이 노래부른다)

『聖玉獨唱』略

慶伊「(노래소리를한참듯다가)저 노래 하는거 누구냐」

玉順「너의 행낭아이지?」

順子「행낭아이라고 그러지마라 얘 우리아버지 한테 혼난다」

慶伊「왜?」

順子「그러면 못쓴데 가튼동모 가지구 그러면 조흔 사람이 못된데」

玉順「우리아버지는 그런아이들하고 놀지도 말내는데」

慶伊「우리 어머니도 그러셔 놀며는 행낭아이가된다구」

順子「그러치만 聖玉이는 행낭 아이 아니다 돈이업서 그러치 공부도 잘하구」

玉順「머ー공부만 잘하면 제일인가? 행낭방에들엇스니까 행낭아이지 경야 그러치」

慶伊「그럼 그러치 머ー야」

順子「그러치만 聖玉이 보고는 그러지말어 불상하지 안느냐」(聖玉上手로 부터 나온다)

聖玉「順子야거기서무엇하니?」

順子「우리 소꿉작난한다 이리와 가티놀아」

聖玉「오ー다들 조흔이형들 가젓구나 재들 다ー너의 반아이냐」

順子「응 애들아 聖玉이다 우리가티들 놀자」

慶伊 玉順「그래」

慶伊「얘 너저 학교 단이지」

聖玉「응」

玉順「그럼 거지학교로구나 머ー냐 행낭아이들 만단이는 학교」

順子「멀 행낭아이들만 단여 아니다 조흔애들도 만허」

慶伊「그러치 머ー냐 聖玉이도 너의집 행낭 아니냐」

聖玉「(홍분이되여서 울듯)그래 행낭이다 어때 행낭아이면 엇째 너의들은 돈이만코 부자니까 그러치 우린 거지야 거지다」(울면서 上手로나간다)

順子「慶伊야 불상하지 안니 왜 그러니 울고가잔니」

慶伊「멀 불상해 건방지게 뚜는 그 거지학교가 제일이면」

玉順「얘들아 이건갓소니. 우리끼리나 놀자 머ー그럴것 잇니......(소꿉작난하든데를 보고) 아이구그런데 慶伊떡이 어데로 갓니」

**"가을"**

바람이 불지안허도 가랑닙흔
한닙, 두닙, 떠러집니다
산파들에는
단풍이 한창이어서 벌거케 숫불처럼 피인게
그래두는 덥지안코 선선하기만 합니다。

(공주사람 오장환)


人生의 敗殘者가 되지 말라

# 力競의 世上이다

## ―體力、腦力을 養生하고― 絶倫의 精力을 發揮하라

現代는「力競」의 世上이다、身分의 貴賤을 不拘하고 單只實力만 잇으면 富나 名譽도 自由로 贏得하야 世上의 成功者가 된다 生活力이 업는 者는 根本的으로 落伍되고 만다 今日世上은 全혀 鬪爭의 世上으로 化하엿다 此時에 處하려면은 優秀한 體力、腦力 又不斷의 精力을 必要로 한다。病弱者는 必히 世間의 敗者가 된다。더욱 活力의 淵源인 男子生○器에 故障을 起하면、人生天賦의 愉悅을 享受키 難함은 勿論、體力腦力에 밋치는 影響이 甚大하고 終末에는 肉身의 破滅을 招來함에 至한다 此最新ホルモン學說이 立證하는바이다。絶倫의 精力家는 恒常 快活明朗하고 潑剌한 鬪志에 富하고 進取의 氣性에 豐富하고 生存競爭場裡에 싸홀수잇는 充分한 資格者이다 此畢竟體力의 優秀、活力의 充實을 意味하고 또 活力에 依하야 오는바、即生殖腺ホルモン의 內分泌旺盛을 말하는바이다 生殖腺ホルモン은 實로 人體活力의 養源이며、男生的特質도 此에서 發한다 然이나 一次生○器에 異常障害가 起하면 即時 生殖腺ホルモン의 缺乏을 가저와 全身的으로 影響되고 終末에는 前記와 如히 世上의 敗者됨에 不過하다 故로、性的 缺陷에 對하야 一時도 放任치말고 迅速히 根本 治療에다하고 快活明朗絶倫의 精力으로써 鬪爭場裡에 臨하지안으면 안된다 以上特히 青年을 爲하야 懇切히 勸告하는바이다

(性的缺陷의 治療에 對하야는 次欄을보시요、)

# 男子生○器缺陷…… 短小機能障害가

## 物理療器로 容易히 正常復活한다 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 大好評

男子로서 性的缺陷者처럼 處世上 不利不幸한者는 업다 先天的으로 性器短小屈曲 又는 發育不全에는 全혀 治療키 難하며 又不自然行爲나 過淫其他에 原因되는 機能障害(陰萎、早漏、遺精、夢精等)과 如한도 治療키 大端困難한 症狀이며 從來의 姑息療法과 無責任한 器具로서는 到底히 思念하엿든 效果를 엇을수업섯다 此時를 當하야、米國醫科大學敎授 ホリック博士는 遂히 其物理的 療法을 發見하고 現代醫療界에 一大 貢獻을 나타내엿다 그럼으로 此新學說에 基한 物理療器가 即「ホリック眞空水治器」이다 本器의 出現은 紙上療法에 苦心하는 性的缺陷者에게 實로 天惠的 新福音이라 하겟다 本器의 効用에 對하야는 旣히 醫學博士五十餘氏의 實驗證明하는바로서 至今 更히 何人이나 其實驗을 疑心할 餘地가 업고 現全國各地病院醫院에서 [illegible]

其作用은 理學的 眞空吸引力과 水治法의 應用에 依하야 衰弱한 性器에 多量의 血液을 流集식히며、細胞의 蘇活을 促함과 共히 理學的エンツンデユング作用을 이르켜 生殖力을 復活식히며 또 生殖線을 刺戟更生식혀서 ホルモン內分泌의 旺盛을 促하고 乘하야 機能의 回復、發育의 促進을 計하는 偉効를 發現식힌다 如此한 療器가 僅僅五圓程度의 廉價로 買得코、自己가 秘密히 治療할수잇는點에잇서 益益大好評을博하고잇다 早期의治療이만큼 效果迅速觀面으로 하로速히 本器를使用하고 更生의喜悅을得하기를 切望한다

### 圖入冊子 無代進呈

더욱 療器를 求하시는 분은 別冊御覽後、東京新療法研究所로 直接御注文次第 使用說明書添附匿名發送함。 葉書申込次第『性의 新知識』이라 題한 最新刊冊子를 匿名發送함

◇效果不完全한僞物이잇다 必히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 要求하시오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奨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 二五錢 鮮滿 五五錢 ―說明書添付―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 一五錢 鮮滿地 四二錢

包莖…[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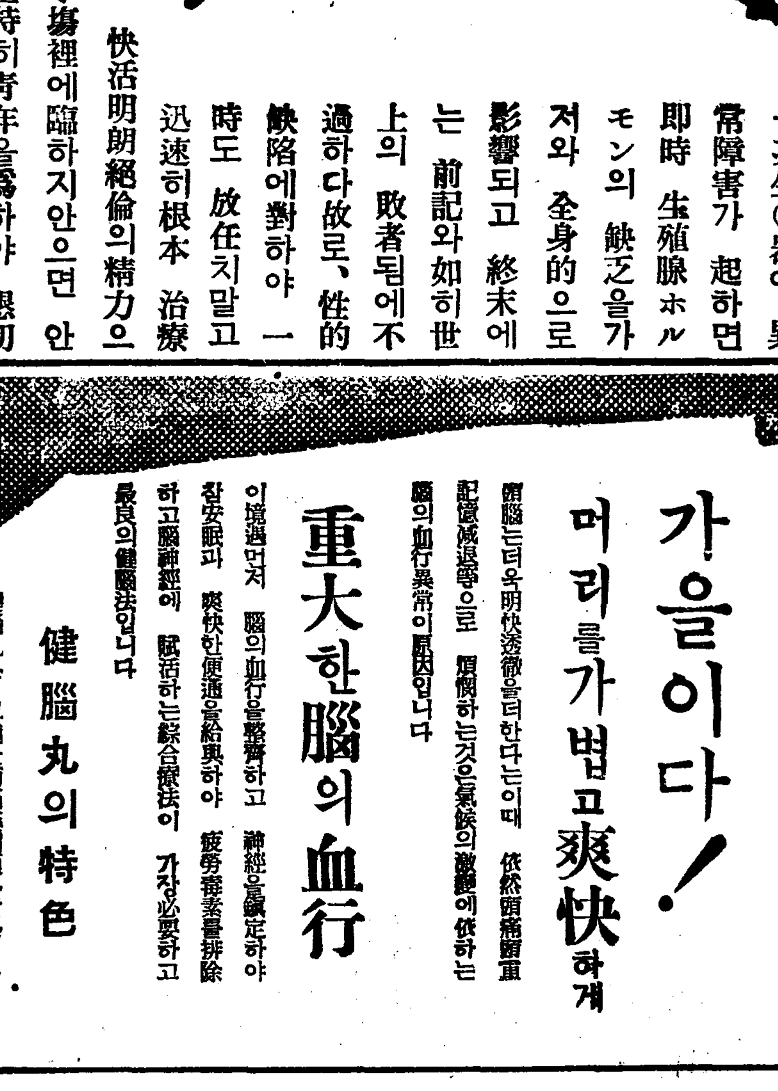
[illegible]

◎效果不完全한僞物이잇스니꼭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要求하라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東京 新療法研究所 振替東京七七三九



# 健腦丸



## 가을이다! 머리를가볍고爽快하게

頭腦는더욱明快透徹을더한다는이때 依然頭痛頭重 記憶減退等으로 煩悶하는것은氣候의激變에依하는 腦의血行異常이原因입니다

### 重大한腦의血行

이境遇먼저 腦의血行을整齊하고 神經을鎭定하야 安眠과 爽快한便通을給與하야 疲勞毒素를排除하고腦神經에 賦活하는綜合療法이 가장必要하고 最良의健腦法입니다

### 健腦丸의特色

健腦丸은 單純한頭痛藥의類와달라 一劑로前途의綜合力을 具備한참代表的明腦藥입니다、常用하면 腦의機能을 增大합니다 [illegible]

近代人의 頭腦의糧!

主効

頭痛、頭重、上氣
耳鳴、眩氣、便秘
不眠症、神經衰弱
中風、卒中豫防에好適

定價 五十錢으로三圓까지 全國藥店에잇음

大阪·東京 丹平商會

# 小說의正常的體質은?

## 二九·十月創作評(二)

安懷南

다음으로는 金裕貞氏의「貞操」를 읽어왓스나 이것은 完全히 失敗해버린 作品이엇다. 안해의貞操를 팔어서 돈을 남구게하는 美人計의 內容을 이야기한 作品으로 氏에게는「소낙비」「솟」等 이 잇는데「貞操」는 [illegible] 物이엇다.

◇前◇

作品에 견주어서말할수업는 運命이 잇슬뿐만 아니라 내가 읽어온 許多한 美人計의 에피소드 속에서도 가장 [illegible]한 [illegible]物이엇다.

「소낙비」「솟」에는 題材에 對한 作者의 觀照가흠뻑 浸透하야 人物의 行動과生活이 리알리스틱 하지마는「貞操」에서는 作者의 淺薄한 이지고잉만이 앙상하야 한군데도 潤澤한것이 업고 自然스러운점이 업다. 若干의 小說的 트릭으로 한개의記事와 [illegible]에서 創作으로 飛躍할수도 잇스며 同時에 한小說로서의 待遇를 要求하게 될수도 잇슬것이나 그러한것은 [illegible]作의 [illegible]스스로 부치고 나스는폭이 되는것이다.

「貞操」에 內包되여잇는 [illegible]의 缺陷은 그것을 一一히 [illegible]例 說證해야만 할 必要는 업스리라 생각하며 金裕貞氏의 作을 보는것이다. 어려한것을 說明하는것은 [illegible]의한조흔 主題가 될수잇는것이나 이것은 [illegible]日의 [illegible]로 [illegible]고 그대로 지나처려한다.

李泰俊氏의「장마」는 오늘날까지 氏가創作하여 내려온 作品가운데서는 取材의性格이 아주 別味를주는 새로운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어느곳에서말한것처럼 身邊小說은 作者가가장잘 보고 알고 하는世界를表現하는것으로 따라서 그것은作者의感動이 第一素朴한形式을입고 나오는것이라고도 말할수잇고 우리에게 [illegible]는 [illegible]한 力을 주는글이라고

◇魅◇

도 [illegible]할수잇슬것이나「장마」와가티 [illegible]히 身邊雜事의 [illegible]에 굿처서는 問題가 달러지고 마는것이다.

金裕貞氏의「貞操」에서와 가티 여기서도作者의 어지고잉을 [illegible] 보게되는것이나 [illegible] 그대신이야기와 [illegible]은 [illegible]지만 그대신이야기의 [illegible]에 잇서서는 어떤이 [illegible]한것이다.「장마」에서그 [illegible] 이야기의 [illegible]을 取하고「[illegible]」에서 [illegible]이 [illegible]하면 그것이 [illegible] 어두깁이 [illegible] 우리를 [illegible]수잇는 小說이 될것이 아닌가생각하엿다 비단 어두[illegible]이아니라 스토리의 [illegible]을 위한 [illegible]에는 언제든지 [illegible] 잇는 [illegible] 어 [illegible] 生活의모양을 [illegible]하는데에는 도한 [illegible]의스토리가 [illegible]한때 이따한것이 우리의 現代作家로하여금 [illegible]과 [illegible]을 [illegible]하면서도 [illegible]하게하고그作品을

◇諦◇

[illegible]하면서도 아직이야기의[illegible]을 [illegible] 實히 [illegible] 하는것이 아닌가한다.

所謂 本格小說과 身邊小說의中斷之道를 밟어보는것은어떠할가도생각하여보앗다. 그러나 小說을쓰고批評을 해보고 할때에는 언제든지 느끼는것이지만完全한 作品을 나하노는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일인것이다. 身邊小說의 眞實과 本格小說의 스토리外에도 主題性—우리에게 感動을 줄수잇는 [illegible]. 李箱氏의心理의 [illegible]과 [illegible]의 感觸等等 우리는 果然, 한作品에서 以上의것을 그하나도 빼노치말고이루어야만 最上의 任務를다하는것인지 누구나앗질하지 안흘수업을것이다.

---

# 一斷章一數題—……(三)

吳章煥

「어머니는 무슨必要가 잇기에나를 만드른것이냐!—나는 鄕愁에살고, 어머는故鄕에잇서, 야든키를 더욱더욱 [illegible]보려가며, 無數한歲月을흘러 머리칼처럼 날려보내며, 오—어머는 무슨, 죽을때까지 倫落된 子息의功名을 기두르는 것이냐!—검은[illegible]의 [illegible]를기여담으며, 오늘도나는[illegible]를 차저나와, 「수왁,수왈」지거리는異國少年의會話[illegible]으며, 한나절나는鄕愁에부다기엿다. 어메여!—온地上그만흔動物中에서담—저하나밧게업는나의어메여!지금의내가잇는곳은, 極東人이설고단이는주요한[illegible]. 결고버린바다우에휘이한角[illegible]이비치올때에나는함부로, 술과싸옴과[illegible]을하다가어메가그리워어둑어둑—한埠頭로나오기도하엿다. 어메야!아는가어두운밤에埠頭를헤매이는사람들, 암말도안코故鄕, 故鄕을그리우는사람들마음속에는모—다기픈상처를숨기여가지고, 오—어메야!아니냐, 게집이떠엿떠엿이헤여저잇는사람들. 죽은故鄕이기때문에더욱이그리울고나. 암—말도안코검은그림자만거니는사람아, 서엇는사람아, 나가고향을그리워하는것도내가어메를못잇는것도, 다—마찬가지제몸이외로우니까 그런것이아니겟느냐!어메야, 五六年이넘더록—字消息이업는이, 子息의便紙를너는무슨손곱아기두르는것이냐!편지라는서로히서러움을하소하는通信이려니, 어메는行方도모르는 자식의安在를미듬이조타.

## 面事務所

新作路가으론 조그만한석집이잇슴니다. 琉璃窓은 人造絹치럼빤저어리고 村民들이 稅金을밧치러 들어갑니다.

---

「貞操」에 內包되여잇는 [illegible]의 缺陷은 그것을 一一히 [illegible]例 說證해야만 할 必要는 업스리라 생각하며 金裕貞氏의 作品가운데서 農村을 取材로 한것과 都會를 背景으로 한것과를 區分하여 보면 興味잇는

◇差◇

異를 發見한다. 氏의 長點과 特才는 情緖에넘치는 文章과 野生的인 스토리인데 그것은「소낙비」「총각과 맹꽁이」「산골나그네」等 農村을 그렷슬境遇이지 今番의「貞操」를 비롯하야「어린音樂會」「심청」가튼 都會生活을 表現하는데 이르러서는 그 좁은線이 닭바에가들어지고 生氣가 업스며 文章까지도 魅力을 일코 마는것

---

# 東洋과西洋의對照

## 묵은問題의새로운吟味 (2)

趙憲泳

그러면 이 東洋이니 西洋이니하는것은 무엇을 標準하고定햇슬까. 日本서 東쪽에 엇다고하면 亞米利加에서는 우리가너의보다 東쪽에 잇다고할수잇슬것이오 英國서는 우리가 너의亞米利加보다도 東쪽에 잇다고할수잇슬것이다. 그런데 極東이니 近東이니하고 東印度니 西印度니하는地名이잇스니 또極東에서만 日本이니 朝鮮이니하는東方을 象徵하는이름을 지어서 東西에잇서서는 全世界가 아무異議업시 共通되見解를 가지는것은 무슨까닭일까.

여기에對해서 文獻을널리 考證하지못한것이 遺憾이나 常識的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歐亞大陸을 中心으로하야 定해진것이라고 생각된다 元來地點의方位는어떤 文化的勢力이나 政治的勢力의 中心地를中央으로하야 定하는것이 原則이니 이것은 적게한村落에서크게 全世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다. 그런데지금도 오히려 歐亞大陸이 全世界의 感을 줄만큼 文化的政治的勢力이 거기에 集中되어잇고 濠洲亞弗利加洲도 東西에잇서서는 歐亞大陸과 一致하니 아메리카大陸이 發見되기前에는 一人도 이에 疑義를 가질이가엽섯을것이다.

## 食物로본東洋과西洋

普通말하기를 西洋人을 肉食人種이라고하고 東洋人을 菜食人種이라고한다.

우리가 動物學乃至人類學的으로볼때에 人間의 食物은 그種類가 肉食이니 菜食이니하는 한方面에 局限되는것이아니오 動物性飮食物과 植物性飮食物을網羅하는 多方面으로 複雜하게 攝取하는것이아니며 [illegible]物性까지 [illegible]한다.

그것은 動物學上 爪牙에서보는 우리의 [illegible]과 [illegible]에 [illegible]合되는 食物이 攝取하는食物이 [illegible]것이다. 鳥類에잇서서 肉食鳥類인 수리(鷲)나 매(鷹)가든것은 [illegible]銳利하고 堅實한 [illegible]의 爪牙와 [illegible]를 [illegible]하면 [illegible] 獅子나 범(虎)이나 [illegible]는 [illegible]것 [illegible] 가지고잇다. 이 銳利한 齒牙의 有無와 [illegible]로서 그動物의 肉食의 程度를 判定하는것이다.

人類는 犬齒(송곳이)가 上下左右에 네個가잇스니 이것으로써 人類가 肉食도하는것을 알수잇다. 그리고 소(牛)[illegible] 그러케 [illegible]는 別必要가 업는것이다 東洋서도 富貴家의養生法에는「溫滋味而養身」이라고하야 肉類를 먹게하는것이조타고 하엿다.

大體로 西洋人에게는 肉類를 만히먹으므로 因해서 생기는病이만코 東洋人에게는 [illegible]너무[illegible]어서 생기는病이 만흔 것을[illegible]수잇다. 年前에 米國保健[illegible]에서 肉食家와 菜食家의 [illegible]力을 [illegible]하야 그 [illegible]이 菜食家가 [illegible]다고해서 그 [illegible]한 [illegible]로서 一般에게 菜食을 獎勵한일이잇다.

이 菜食獎勵論이 우리에게도 適用이 될것인가 아닐것인가는 [illegible]이가잇다. 그러나 一般的實驗한 統計가 업스니 速斷하기 여러우나 나의 推斷에 마낀다면 東洋人은 全然菜食만하는사람보다는 多少肉食을 兼하는이 [illegible]가 [illegible]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漢[illegible]하거나마 [illegible]하는일이다.

다음에 肉食家와 菜食家의 差異를 觀察하야 東西兩洋人의 生活에비처보면 저절로 [illegible]는바가 [illegible]일것이다.

[illegible] 利하지는못해도 牛馬의[illegible]과는다르다. 그러므로 사람의食物은 植物性이大部分이오 動物性도 取한다는것이 普通의事實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普遍性共通性을 是認하는同時에 그特殊性差別性도 否認할수업스니 因一[illegible]히 사람이라고하더라도 氣候風土와 地理的環境의 差異에依하야 人種的差異에依하야 生活方式의 差異에依하야 또는 各自의 體質의差異에 依하야 그攝取하는 飮食物이 實로 千差萬別일것이다.

西洋人에도 菜食을 만히하는이가잇고 東洋人에도 肉食을만히하는이가잇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볼때에 西洋人이 肉食을 더만히하는것은 事實인듯하다.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보는바가 잇스니 西洋人은 牧畜에 菜食을 힘쓸때가만코 東洋人은 農業에 肉補를 힘쓰는것이 普通이다.

近來에 우리귀에도 菜食菜食하는말이만히 들리게되엿스나이것은 舶來養生法이니 오직富貴家에만 適用될것이오 一般的으로

---

# 그天才的素質

## 將來에發揚해야할

大邱壽昌普校圖畵科主任 李在澤氏談

귀사주최의 제일회전람회에서 초등학교로써 저의학교 생도가 특선으로 입선되엿다 하심에우리학교로서는 참 영광으로 생각하는동시에 귀사에대하야 기피 감사의뜻을 표하는바입니다

이번에 다행이 특선에입선된 정동섭(鄭東涉)은 성격이 온순하고 근면하기가 우리학교에모범될만한 생도올시다 그리고학과성적도 양호합니다

그럼에 잇서서는 천재적소질을가젓는데 가정이퍽도 빈곤하야 장래에잇서 어떠케저소질을 더욱 발휘할수잇슬는지? 이것이 아동장래를 보아서 염려됨니다 이번에도 도화용의 도구가 업서서 곤난한것을보고 제가 일체사주어서 그리게 한것입니다

·저는한편으로 기뻐하는동시에 아동 장래를 생각하야 [illegible]참을수업습니다

## 父母된저로선 부끄럽습니다

鄭東涉父親談

우리애가 귀사주최의 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 특선으로입선되엿다고요 참으로 듯기에 황감합니다 그리고 귀사는우리사회를위하야 만흔사업을하여주신점에대하야 중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러케오시여서 감상을 무르시나 무슨감상이 잇것소마는 부모된나로써 오히려 아들을 대할면목이 업습니다 살림사리가 퍽도 빈곤하야 자식의 요구에 응치못하니 얼마나 가삼이 타겟습니까? 이번에도 드른니도 화선생님 [illegible]주어서 출품하게되엿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이번입선되것은 도화선생님의 덕택인줄 생각합니다

「風景」 大邱壽昌公普 鄭東涉作 (學生美展特選)

---

# 中國에잇서서 數學의發達

② 金一鎭

그러나 周公當時의 九章算法이 어떠한것이엿는가는 지금 알길이업스니 그以前의 九章에關하야는 더말할 餘地가업다. 漢時代에 일으러 張蒼이出生하야 古書籍을 整理하야 一書를 編纂하엿스니 이를 가르되 九章算術이라한다. 此書는當時의 新作이아니요 예부터傳하야오던것을 刪補校修한것이다. 張蒼에 뒤를니어 耿壽昌이 또한 이에 加筆하엿다. 張蒼은 처음에 仕官하엿스나 沛公이 起하매 沛公의 九章算術에依하야 [illegible]에이르럿다. [illegible] 吏하엿다 [illegible] 序文에 [illegible] 못 [illegible]을 [illegible]으로 [illegible] 進하야 文帝(紀元前一七六)六年부터 其後 [illegible] 十五年 間 丞相의 자리에잇서 [illegible] 年(紀元前一五二)에 卒去하니 年齡百餘歲이엿다.

及 漢書列傳中에 明記하여잇다. 耿壽昌은 宣帝(紀元前七三年부터同四九年까지)때에 大司農丞이엇스나 그傳記는 詳細하지못하다.

漢時代에 張蒼 耿壽昌等이 刪補或은 記述한 九章算術九卷은 [illegible] 劉徽가 陳留王景元四年(紀元二六三)에 註解하고 其後 唐初에 이르러 李淳風이 또 [illegible]을 [illegible]하엿스나 [illegible]지 [illegible]하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에 그例를 볼수가업다. 支那古代의 計算器械는 數籌類엿는듯하다. 이것이 漢時代에 使用되엿음은 漢書(後漢의班固의作)에 明記하엿스며 이以前에도 使用되엿음은 [illegible] 諸史跡으로보아 充分히 首肯할수잇는바이다

漢初에 編成된 九章算術은, 計算器械에 關하야는 何等記載한바업스나 그計算方法을 說明함에 際하야는 算木의 算法에 依하얏슴은 疑心할餘地가업다. 孫子 其他의 古書도 이와同一하니 漢代 或은 그以前부터 算木이 使用되엿슴은 事實이며 그 算法에 至하야도 九章算術, 孫子算經, 五經算術及其他古書에比하야 考察하건데 後代의 算木計算法과 大差가업슴을 볼것이다. 그 算木의 形狀에關하야는 後漢의 班固가 그著漢書中에 記載함에依하면 竹籌를 使用한比較的간것이엿다.

算木의 使用은 支那에行하여 잇슴은 [illegible] 支那數學의 特色은 아니엇스나 算盤算術이 後世支那算法의 [illegible]로하야금 一異彩를 數學史上에 發揮케한 一原因으로 生覺지안흘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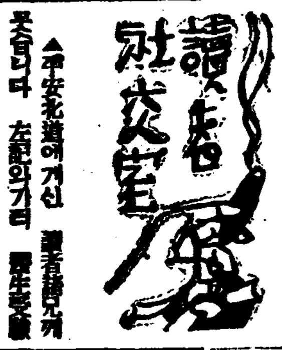
支那數學은後代의 發展이 或은 印度數學의 影響이全無하엿다고는 斷言키어려우나 支那數學의 獨立的으로이루어 印度數學以外 亞剌伯數學以外에 이三者가 三方鼎立함에 이르럿음은 實로이算木使用의 特化로 因함에[illegible]이라하겟다.

九章算術에는 分數算術이잇스나 小數算術은 使用함이업다. 數學史하건데 小數는 支那古代에서는 드되여 發達하지못한 [illegible]인이라 生覺한다. 孫子算經의 [illegible]이르러도 또한 小數를 說明한것이엇다. 加減乘除의 算法도 九章에 그說明을 [illegible]하지못하엿다 [illegible] [illegible]

이업스나 正負의區別은 이미使用되여잇스니 今日 우리가 使用하는 正負란語는 實로 이九章에서 由來한것이다.

九章中의一章「方程」의術과 如함은 多元一次方程式을 羅列하야 이를 푸는算法으로 想像하건대 正負의 算木을 늘어노코 그算式을 세웟는것이 아닌가生覺한다. 兩種의 算木을 使用하엿슴은 劉徽가述한 註解中에發見할수가 잇다. 漢後代의 代數記號는 이算式을 紙筆로記錄함에이르러 必然的으로 發達한것이다

이미 開平開立의 算法이잇고 多元一次方程式이잇스니 二次方程式에 至하야는 어떠하엿는가? 勾股章에 二次方程式이라 生覺되는 問題가둘이잇스니 其一은 積을 表示하는 一般公式으로 解答흘與하고 其一은 그方程式이 記載되여잇다. 後者와 如한것은 開平의 算法과 同一하게 處理하야 解答을與한듯하니 換言하면 一種의 近似解法을 使用한것이다.




◀平安北道에게신 讀者諸兄께 [illegible]습니다 左記와가티 [illegible] 規則을 [illegible]으로 [illegible] 시면 時代[illegible] 九月[illegible] 해드리겟습니다

一、[illegible]
一、新年度[illegible]
一、受驗科目[illegible]
一、全部[illegible]
一、漢方[illegible]
一、口頭[illegible]
一、本社에서 [illegible]
一、[illegible]
[illegible] 張仁[illegible]

◀生은 無名의一文學少年입니다 故鄕을등지고 쓸쓸한環境의 거리로 移舍를하고보니 孤獨한 울격함수가업구려! 나와가튼環境에잇는少年들과 其他文學少年少女들이여!—편지로라도 親한동무가됩시다. 左記住所로 편지하시면感謝하겟습니다

新義州府[illegible]動洞八七 李[illegible]

◀저는今年二十歲로서 大東商業學校第四學年在學中인데 집안事情으로 學校를中止할境遇에達하여 家庭敎師로 드러갈가합니다 報酬도업어두 좃습니다 다만寢食만하면 滿足합니다 普通學校生徒면自信잇시 敎授하겟습니다 希望者가게시거든 市內[illegible]町十一의六 四金[illegible]으로 通知하기를伏望합니다

◀讀者社交室을通하야 滿天下讀者諸兄弟姉妹께 懇請합니다! 生은甲辰生(明治三十七年)이온대 甲辰年生이 우리朝鮮에얼마나되며 또現在何處何事業에 從事하며 또는 何方面으로社會活動을하고 잇나하는것을 알어보는同時에將來親睦을 도모하는것도 決코無意味한일은아니겟다고 생각하야 甲辰生의 [illegible]입니다 그리하야 生이甲辰生左記[illegible]를 알[illegible]하오니 甲辰生兄弟姉妹는 生年月日 男女別 氏名住所 職業等을 詳細히 左記住所로 葉書一枚式 [illegible]주시오면 感謝無比이겟나이다

黃海道[illegible]郡[illegible] 崔[illegible]

◀[illegible]하시는분의게 本人이 事情에依하야 左記[illegible] [illegible]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illegible]

一、[illegible] 十年版 一、大[illegible] 學 一、二、三 昭和三年版 一 [illegible] 年版 一、[illegible] 昭和七年版 一、大[illegible] [illegible] 新定 [illegible] (以上[illegible]) [illegible]


#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荒城(大)「수―만」 一、넘은 나의 [illegible](男)「[illegible]」

【피아노】 一、「소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체르토」(G長調)—第一樂章—「[illegible]」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상當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 新刊紹介

◀ホームライン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町一丁目 ホーム 振替東京二一二一番 定價十錢

◀月刊野談 十月號(內容) 僞裝金銀 手帳鬪 女色諸人 林白湖와一枝梅 [illegible] 仁祖反正其他 發行所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illegible]社出版部 振替京城二一八二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朝鮮工業協會會報 第三十九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四番 定價二十錢

◀카토릭少年 十月號 發行所間島省龍井市 카톨릭少年社 振替京城二五〇一六番 定價八錢 送料一錢

◀新人間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illegible]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野談 十月號(內容)[illegible] 首陽의結婚 [illegible] 崔孤雲 桂月香 [illegible] 其他 發行所 京城府[illegible]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二十錢

# 優秀治淋藥 리베―루

リベール

本劑의特徵

一、膀粘膜에서吸收를速히하야服藥翌朝尿를藍色으로變하야强한リベール냄새를내면서排出하야이때는벌서快感을느긴다

一、尿道를侵犯하고잇든無數한徵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이殺菌性尿에依하야體外에排出된다따라서濃이업서지고苦痛도消散한다

一、藥效를確實히알라면リベール의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顯微鏡으로比較檢査하는것이速한法으로服藥後에每日每日黴菌이업서저가는現象을볼수가잇다

藥의選擇을그르치지마라

單味의白檀油球와바루삼球及在來의治淋藥等은만흔境遇에四五日間連用하야도곳藥이익어서其後암만服用하여도容態에變化가업시如前히白色粘液을分泌하는特製リベール의製劑에苦心硏究한것은오직이點뿐이다今日世界的으로リベール의需要가激增하고各國의市場에잇서서도亦是絶大의信用을博得하고盛히實用되여只今은輸出先이二十餘個國에미치는것도其效果가特히優秀한까닭이다

警告

自家尿道洗滌又는局所療法等은黴菌을逆으로속에드려보내서膀胱炎을이르키거나睾丸炎에걸려서大端히後悔하는사람이만타斷然謹愼하여야한다決코他藥에迷惑치말고優秀治淋藥으로서信用할만한特製リベール를반듯이指名하서라內地滿洲國海外到處藥店에서販賣한다萬一品切時는本舖에서直送함(送料不要)

定價 一五日分 二圓 七日分 三圓 十三日分 五圓 十七日分 十圓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
本舖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참으로잘듯는해열제
元祖 竹村 돈뿌구
더운砂糖물에녹여먹으면곳氣分이爽快

連載野談 (一美)

#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 마룰캐든총각 (三)

선화공주가 비록 잘시간이라도 그 젊은중의 풍신을 한번 볼적에

「아아。저 젊은중이 뉘집의 자손일가。백성의집 자손인가。사대부집의 자손인가。뉘집의 자손으로 태어낫든지 그만하면 자손을 잘두엇다하지 못두엇다고는 아니할것。그런데를 이상도하지。어찌해 중이 되엇슬가。예로부터 중이되는 사람은 흔히 신세가 가엽슨 사람이 중이되는일이 만타는데 어찌해 중이되엇슬고。부모를 일직 여이엇든가 계모의 화대를 바덧든가。그러치 안흐면 생 팔자인가。그만한 생긴 풀격으로 어찌해 중이되엇슬가。」

하며 선화공주는 그젊은 중이 그러케 잘난 풀격으로써 어찌해 중이 된 까닭이 몹시나 궁금히 생각키엿다。

선화공주는 그 젊은중의 잘생긴 풍신과 또는 그러케 복성스러웁게 생긴 풀격으로 어찌해 중이된 까닭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중 또한 그젊은중이 액이 얼마 남지아니하얏스니 그때려을 자치 일러 주마고하든 말을 더욱 이상히 생각하면서

「자ー。모를일로 만칭。저 젊은중이 그러케 잘난 풀격으로서 어찌해 중이 되엇는지도 모를일。또 내가 공주인줄은 어찌 알며。더구나 귀향가는것까지 어떠케 알엇든지 그도 모를일。아아。내가 공주。그리고 귀향가는줄을안것은 그몸을 노래로써 내가 부정한짓을하고 그죄로써 귀향을 간다는 소문을듯고 내가 가는행색이 아마도 달으니까 짐작한것。그것은 그러타치고 내의 액이 얼마남지 아니하얏다는 그말。또는 그때려을 일러주마는 그말은 아주 점잔코도 장래일을 내다보는 도를 통한 도승의 말이나 말을이업서。나히 그러케 어려보이는 사람이 언제부터 중이되엇는지는 모르지만 그와가티 도통을 하얏다고는 할수업는것이니 이것도 역시모를일。액이 저러튼 내의액이 얼마 남지아니하얏다하니。그 때려을 알려 주마는말。모두 매우 중한말인데……。」

하며 선화공주는 어찌해서 그런 액이 생겻스며 그 때려이 어떠케되엇든지 듯고 십흔 마음의 그놈이 오로질 저녀비해 물넌 큰 고목나무의 그림자와 가티 깁허저가다。

그러다가 선화공주는 무엇을 깨달은듯이 깜작 놀내며

「아니야。내 마음이 어찌 이리 약하고 정치못해。예로부터 용중스러운것은 중이라는뎅 중이면 늙고 젊은 구별이 잇슬리잇나。저중도 멀면 그런 중의 본색인 응중마진짓으로 나를 롱락하려는게야。예이 고약해라!。내가 어찌 그러치 귀가 엷고 눈이 엷울가。」

하며 선화공주는 그젊은 중의 잘난 풍채를 마음으로 색여보고 그의 말을 듯고저 한것이 오늘날까지 직혀내려온 행금에 버서나고 그깨끗이 닥어오든 더욱 더러히는것으로써 크게 후회하얏다。

그러나 그젊은 중은 수례의 좌우편으로 번갈려 단기며 장차 압호로 가는길의 놉고 나진곳과 괴이한 산과 맑은 시내가 어듸 어듸 잇는곳이며 그박게 흉흉한 경치와 험악한 지형을 보는듯이 설명하야 선화공주의 울적한 마음을 위로하는동 선화공주의 탄 수레가 얼끗만치라도 배끗할가를 염려하는등 그 다정스러운 태도가 진실노 가절하얏다。

그러함에도 그 흉흉한 얼골이 주렁사이로 비치어 선화공주의 눈에 어른거리고 그 맑은 음성이 주렁사이로 숨여들어 선화공주의 귀에 사모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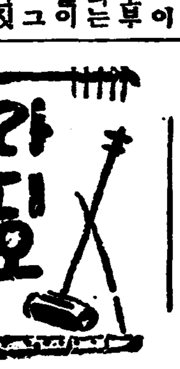
선화공주는 그젊은중의 얼골이 비치는것 목소리가 들니는것을 피하랴하나 원래 흥흔 수레안이라 이리 피하야도 그얼골。그목소리。저리 피하야도 그얼골 그목소리!。

「아아。괴로운일도 갓수록 만허。이것도 내 팔자소관이가」

하며 선화공주는 그젊은중이 따르는것이 마음에 괴로웟다。

그러나 만일 따르지 아니한다면 허수룩할듯한 늣김도 업지 아니하얏다。

"夜鶯" 은 한네스·마이야ー監督 말라·엣겔르主演 獨씨네·아리안스作品




## 十二日 (月曜)

◇午後六時 이야기「時節을 찾는새」 柳長星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三〇分 講演 孔聖誕辰을當하야 明倫學院 鄭鳳
◇同八時 報念外 一、報念 二、육자배기 三、興打鈴 四、개고리타령 卞鳳紅 金柳鶯
◇同八時三〇分 普律 一、平調會相 二、吹打 三、興民樂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申
◇同九時 怪談 "逐鬼郞" 金瀾雲

###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基礎英語講座(九) 豐谷榮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北島久야
◇午後〇時五分 (大) 合唱과管絃樂 大阪오케스트라
◇同二時 (東) 婦人講座 石田하루
◇六時 童話 太田一江
◇同六時二五分 英語講座 關屋五十二 (二ノ三)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올림픽으로부터 돌아와서 各代表主將
◇同八時 (鹿) 俚謠巡禮 (一) 鹿兒島、福岡
◇同八時二〇分 (大) 레뷔ー 寶塚少女歌劇月組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木村友衛

## 十三日 (火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沈淸歌 散手 池龍九 朴秋月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初秋에잇기쉬운小兒病 李聖鳳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獨唱(女子)(金元順) (가) 기러기 (나) 휘바람
二、獨唱(男子)(柳漢星) (가) 기러기 가을 (나) 어머니
三、獨唱(女子)(鄭致煥) (가) 가을바람이지 (나) 참새색기
四、齊唱(女子)……牛角里幼年主日學校兒童 (가) 가을 (나) 꿀돼지 (다) 새서방새색씨 仁川初等學校童謠入賞者
伴奏 崔奉鎔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六時三〇分 經典解說 李明世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 歌曲 一、界面初數大葉 二、界面頭擧 三、弄 四、界樂 五、編 金鳳仙 崔蓮花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申
◇同八時三〇分 寧邊歌外 一、녕변가 二、자진배따라기 三、놀냥 四、뒷산타령 五、방아타령 六、긴난봉가 全文松 全光淵
◇同八時五五分 라듸오드라마 "그女子의一生"全一景
配役 香蘭……妓生……林玉瀧 金仁浩……畫家……李石元 朴春完……富豪……李流星 彩娥……童妓……安榮珍
라듸오劇研究會 指揮 李如水 效果 效果班

###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英語講座(十)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 (大)家庭講座 十月의育兒 醫學博士 大久保直穆
◇午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李聖鳳
◇同二時 常識講座 朝鮮의河川 本間孝義
◇同六時二五分 (東靑年의時間) 靑年과美術 山本鼎
◇同七時三〇分 (東)生活改善講座 嘉納治五郎
◇同八時 (松)俚謠巡禮
◇同八時一分 (大)義太夫 豊竹昇之助
◇同八時三〇分 만도린合奏 京城만도린合奏團
◇同八時五五分 (東大) 東西漫談二元放送

## ＊曆＊

十月十三日 (火) 舊丁酉八月小(廿八日) 戊辰 木 翼 破
●祭祀破屋에宜함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 映畫界挿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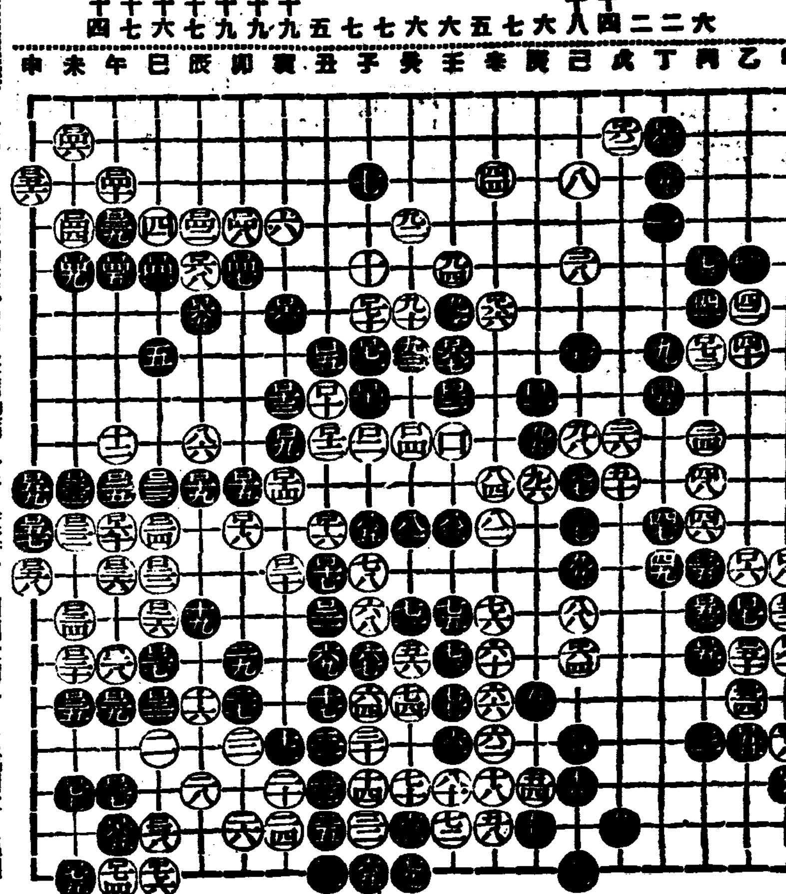
### 테ー라ー의歎息

「그래타·가르보」를 相對役으로「椿姬」를 撮影하게된「로버ー트·테ー라ー」는自己보담 先輩요 名優인「가르보」와 相對한다는것이 어떠케 조와던지 날마다撮影所에와서 보앗스나 날마다延期하야 어는때 撮影이開始될지 몰라 약이올라 날뛰는데 하로는 「가르보」가 레스트하려 撮影所에나와건기에 뭇잡고 어떠케하느냐하고 물어보니「가르보」는 오늘도 氣分이 나지안습니다하고 拒絶해버렷다는데 「테ー라ー」는 하는수업시 코만떼고 도라서면서 「정말로"가르보"라는것은傳說의女子로구나」하며歎息하얏다。

## 圍碁對局譜 —11—

本社主催

白 李穫文 黑先 丁壹春



●一六一 寅의六
○一六二 戌의二
●一六三 丁의二
○一六四 己의十四
●一六五 午의十八
○一六六 辛의六
●一六七 壬의七
○一六八 辰의五
●一六九 辰의六
○一七〇 子의六
●一七一 子의七
○一七二 丙의七
●一七三 丙의五
○一七四 午의十九
●一七五 未의十九
○一七六 巳의十九
●一七七 未의十七
○一七八 甲의十六
●一七九 甲의十七
○一八〇 甲의十四

### 對局者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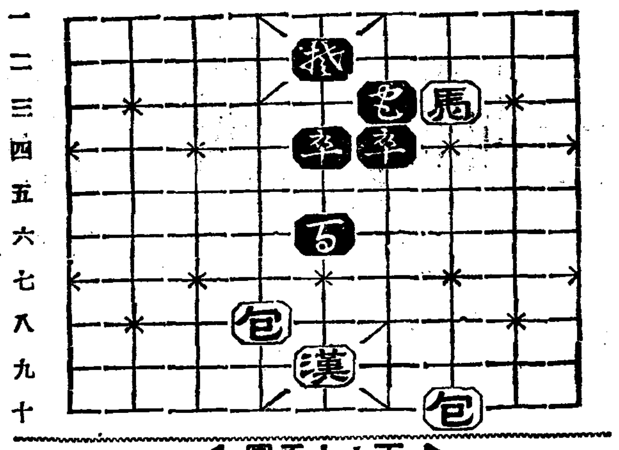
全局이 輸在均衡하니 修補裝飾으로 衆寡를 判明할지라 白戊의二 己의十四가 最要하고 白甲의十六除하야 不過一端이나 其裝作方法과 應手를 要함은 工力이 不無함을 自許하노라

## 將棋名手對局譜 (六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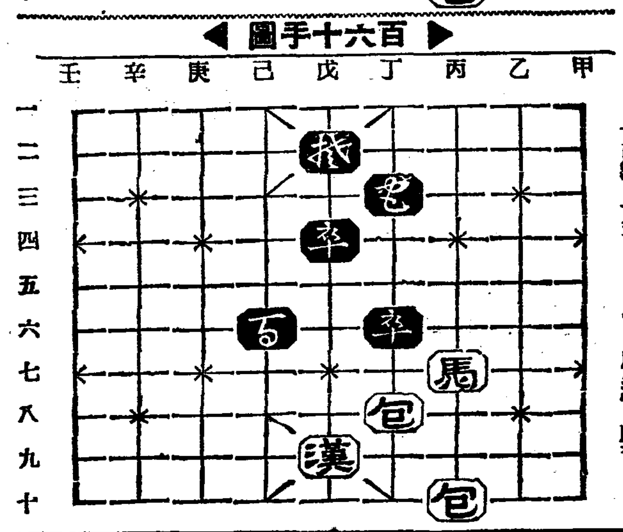
本社主催

楚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百十五手圖



百十六手圖



戊六包―丙五
丙三馬―乙五
丙五包―丁七呼將
戊九漢―戊八
丁四包―丁五
乙五馬―丙七
丁五包―丁六
己六包―丁八
丁七包―己六呼將
戊八漢―戊九


# 朝光 十月號 定價三十錢

發行만되면 大衆의 벗이되여 恒常 賣盡되는우리의 雜誌王『朝光』은 더욱 十月號를 暴風的으로 貴무게잇게 만드럿습니다 街頭에서 家庭에서 누구나 읽어야할 好評잇는 本誌를 速히 來讀해 읽으십시요

蘇聯의「오프리」運動 一記者
白頭山及映畫畫報
스탄벍會見記 安夕影
中國의漢字廢止運動 韓靑心
亞米利加文明縱橫觀 鄭一亨

晴讀雨耕 心頭雜草 金石松

가을의讀書三昧境
◇多樂樓夜話……梁柱東
◇夜深人靜……尹日善
◇暮鍾晨梵……韓龍雲

가을에부치는편지
生活의記錄……李孝石
青春의記錄……姜鷺卿
붓向한그대로……安懷南

가을의愛誦詩
◇가을孤寂落葉……李軒求
◇옷시언의노래……白鐵
◇가을、離別、그리움……吳一島

治山治水의急務… 咸尙勳

水災는 朝鮮의 年中行事 이것을 어떠케하야 撲滅할수잇을가? 堂堂批判의에 스는 날카롭다

가을의探勝處
金綏根、金麗鐵、李泰俊、李秉岐、高裕燮、金煥泰、權相老、李克魯、方鍾鉉、李石薰、李一、姜鷺卿、金德鳳、金尙鎔、金鳴善、李孝石、高義東、安懷南、姜在鎬、李相、金東鳴、林和、李軒求、李光洙、李箕永 (到着順)

佛敎의原理 權相老

亦一詩話… 洪碧初

◇家庭
가을의西洋料理……宋玉璇
가을의化粧秘訣……吳淑根
新秋의婦人服……任貞爀
가을의小兒衛生……張文卿
兒童과誘惑……金興濟

漫文漫畫…거즛말의떼파ー트…李周洪
漫文漫畫…全大砲…崔永秀

文藝
社會와藝術에關聯하야……金英根
文學上의地方主義……林和
哲學의理念과그現實行程……金基錫
異國風物詩……高鳳京

三南災害地踏破記
暗行御史

玉山神社와高麗歌 白楊桓民
文壇消息 各界消息

血液型 鄭槿陽

朝鮮人의血型 崔棟

民族에따라 그血型이다 틀릿음은 누구나 아는事實이지만 이論文은 世界民族의 血型과 朝鮮人의 血型을比較研究한同時 또朝鮮人의 血型의特質과 또各地方人의 血型等 實際로實驗한結果에 依하야 된 이論文은 三讀四讀의價値가잇다

피아노 朴慶浩

姉妹誌 女性 定價十錢 送料一錢

十月號今日絕版!!!

一千萬女性의 好伴侶로 創刊以來 그華麗豪華의 極致로써 數萬讀者의 熱狂的歡迎을받는『女性』十月號는 오늘로써 絕版이되엿습니다 다시發行을 하려하오나 十一月號準備關係로 再版을 못하오믈 용서해주소서 그리고 來十一月號부터는 一般讀者의 참된 要求에依하야 頁數를 倍量 느리는同時 定價도 二十錢으로 引上하엿사오니 以此照亮하소서

男性恐怖時代(實話) 李石薰
長篇小說 春夢……方仁根
探偵小說 毒死事件……金煥泰
中篇小說 川邊風景……朴泰遠
中篇小說 未完成……朱耀燮
短篇小說 장마……李泰俊
短篇小說 모밀꼿……李孝石
短篇小說 明日……蔡萬植
映畫小說 愁雨……安碩柱
短篇小說 貞操……金裕貞
野談 곪은구실……申鼎言
民俗 妓生의特色……白花郎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 振替京城五八七八番

# 災地扶安地方에는 支拂命令狀沙汰

◇…扶安郵便所取扱分만도每日數百件

## 債權者跋扈去益滋甚

【扶安】 전북부안지방은 작년의 대한재를 치른후 일반농가는 먹을것은업고 부채는늘어 한심한 상태란 말할수업섯든바 오직 금년사에나하고 기아선에서 헤메이며 지내왓는데 예부지게 금년사마저 수재풍재 더욱히도 열병의대창궐로말미암아 대흉작을 면치못하게되여 금후농가의 생도란 심히우려되는바인데 추수기를 당하얏다하야 채권들의 독촉은심하야 다대수의 세궁농가를 울리고잇다한다 부안우편소에서만 매일취급하는 지불명령서류건수만하여도 수백건이라한다는데 이로만놀지라도 작년대재로 지불유예한 채무를 금년오작년보담 년사가낫다하야 채권자들은 날뛰는모양이라한다 그러나 그실은 요지음부안군지방전면적에 만연해가는 도열병으로 대감수를보게되여 작년보다못하지안흔 흉작에이르게될터이라는바 채권들의 가혹한채속에는 오직 울고잇슬뿐이라한다

## 伊西公立普校 學年延長促進

【淸道】 청도이서공보(伊西公普)는 십개성상을두고 수만흔영재를 배양해오는 이서면유일의초등교육기관이나 아직도 사년제 그대로 오륙학년을 두지못하야 사년수업한 학생들은 중도에취학의경을 이루고잇슴으로 큰두방황하는 참경을 이루고잇슴으로 학년연장기성회장(學年延長期成會長)박원묵(朴原默)씨와 학부형회장(學父兄會長)반상호(潘相浩)씨를비롯하야 면내일반유지들의 총궐기하에 교사증축비 약삼천원을 적립하야놋코 하로바삐학년연장현실을 기다리고 잇는현상이라는데 그간 대표를 선정하야당국에 진정한일도 한두번이 아니라하나 무엇보다중대한 교육기관에 시급문제를 몃번거듭하게됨으로 이서공보창립십주년을 마지한 금일에도 일반학부형의 안색에는 초조한긔분이 떠도르며 당국처사를 매우 주목중이라한다

# 明年度豫算總額 二百五十萬圓突破

## 都市計畫特別豫算額만百萬圓 躍進淸津의氣焰萬丈

【淸津】 매년평창의 한길을것고잇는 청진부예산액(淸津府豫算額)은 금십일년도의 일백이십이만원을 훨신돌파하야명십이년도는 경상비(經常費)만하야 일백오륙십만원을 돌파하는데다 시가지계획(市街地計畫)의 특별예산백만원을합하면 무려이백오십만원을 돌파하리라한다 금일때평까지는 예산요구액의 세목도 대체로 판명되리라는바 신규사업(新規事業)도 상당히 만흐리라하야 약진하는 청진항의 면목을 나타내는것으로 명실이부합되는 충실한예산이 편성되기를 일반은 바란다 한다

# 本報大邱支局主催로 朝鮮의名勝海印寺 探勝團員募集

【大邱】 본보대구지국의 년중행사로 해마다 인긔백퍼-센트적인 해인사남녀탐승회(海印寺男女探勝會)는 금년도 례년과가티 오는십육、칠량일로 확정되엿다 새파라튼 나무닙들은 가을바람에 물들기시작하야 발서 산간계곡에는 금빗으로 변장하야 가을풍경을 일우엇다 비단결가튼 단풍(丹楓)의 풍경은 이때가 과연 한시절로서 대자연의미를 여실히 찬상하랴면 조선팔경에 첫재로 굴지하는 절승지인 해인사(海印寺)산곡이 아니고는 차질수업슬것이다 그럼으로 본보대구지국에서는년중행사로 해인사탐승을 계속하야오든바 매년마다 일반의인긔백파-센트로 남자발표수일만에 정원초파를 내어고잇다 이번은 특히 인원을 만히수용하기위하야 일이대로 구별하야 단원을 모집하는데 일대는 십륙일오후 한시에발정하야 해인사에서 박케하고 이대는 십칠일오전일곱시에 발정하야 그날당일 일대와가티 도라오기로 한다는대 이번은 더욱녀자단원(女子團員)을 單獨的으로 모집하기로 하는 바 대한추의사항은 다음과 갓다

◇參加事項

(一) 會費 一隊金三圓八十錢(一宿泊含) 二隊金三圓五十錢(當日往復午食提供)

(二) 時日 一隊 出發十月十六日午後一時 正刻 二隊 出發十月十七日午前七時 正刻

(三) 衣服 可及的輕便한登山服을着用할것

(四) 蓋被 携帶品을 準備하실것

## 文殊公普生赤誠 (續)

자그대로의 형용이다 【書簡】 今年水災가 甚하고 참혹한것은 先生任의말슴으로잘 알엇습니다 우리生徒는 두기여창으로 애처러운생각이나서 敎師오사람이 一二錢식모아서 金一圓也를 付送하오니 적으나마 참으로 困難한사람들에게 保助해주시기바랍니다 文殊公普校生徒一同

## 安息敎會·赤誠

【江西】 삼남각지방은 홍수해로 인하야 농토와 가산을 일코 먹을것과 입을것이업서서 헤메이는 동포를 위하야 강서군 강서면 거장리 안식교회(江西郡江西面巨長里安息敎會)에서는 소소한 금액이나마 도움이될가하야 교도들에게 한푼두푼을 모아 금이원오십전을 본보강서지국에 기탁하엿는데 지국에서는 즉시 본사로 송금하얏다

## 風水害死亡者 慰靈祭를擧行

【高城】 지난 팔월 이십일일 풍수해에 휩쓸린 수재는 농작물과 기타재산상에도 만흔 손실이잇슬뿐 아니라 인명의 사망도 실로 이백여명이란 수자에 달하엿슴으로 그참담한 죽엄의 가련한 고혼을 위로코저 지난 구일 오전십일시에 금강산대본산 건봉사(金剛山大本山乾鳳寺) 큰법당에서 그들의천혼식(薦魂式) 위령제(慰靈祭)를 성대히 거행한다함으로 본사에서는 이를 주최한 건봉사에사의를표하고 가석한 사망자들의 령혼을조키위하야 본사고성지국장(本社高城支局長) 최규직(崔圭稷)씨를 특파하여 위령의제에 참석케하엿섯다

## 本社三湖支局主催 經濟大講演會 超滿員大盛況裡閉幕

【三湖】 귀보=본보삼호지국주최 본사주필 서춘(徐椿)씨 경제강연회는 지난 구일 삼호공보강당에서 통화팽창의동향(通貨膨脹의動向)이란 제목으로 약두시간동안이나 조리잇게 열변을토하야 초만원의 청중을 도취케하고 오후열시에 무사히 종료하엿다한다

# 木浦府內에大火

## 住家七棟二十戶가全燒되여 損害額一萬二千圓

【木浦】 지난십일오후십일시반경에 부내남교동(府內南橋洞)일백십삼번지에서 불이나서 음식점、상점、려관등 칠동이십호(七棟二十戶)를 전소시키고 잇튼날 오전한시반에 겨우진화가 되엿는데 맹렬한 화염중에 싸인한 호남려관(湖南旅館)에 숙박한 려객들은 친의만입고 뛰여나오는 광경은 실로처참하엿스며 또그부근이 공설시장(公設市場) 우편소(郵便所) 금융조합(金融組合)등 중요한건물이 잇는것만큼 매우혼란하여섯다 소방수이명이 경상을당한이외에 인명에는 관계가업섯스나 손해는 가옥이 륙천칠백이십오원、가산이 오천원、상품이 오백원 합계일만이천이백이십오원인데 보험에가입한것은 백재옥(白在玉)씨의소유가옥이 삼천원이요 내곡만평(內谷萬平)씨의 소유가옥이오천원 합계팔천원밧게아니된다하며 출화의원인은 관계자를소환하야목포서에서 조사중인데 추측컨대 대목하개업을하려고 오늘보수선하야 불을과다히한때인 치과의일야팔월생(日野八月生)집에서 발화한것이아닌가한다

# 工費七萬五千圓드려 聖母普校落成

## 十日盛大히式을擧行

【平壤】 평양부내의 사립초등학교가운데에서 숭덕보통학교(崇德普通學校)와 광성(光成)보통학교와가티 가장 오래인 력사를가진 긔명학교(基明學校)의 후신인 사립성모보통학교(聖母普校)에서는 그동안 상수구리(上水口里)에 작년오월십일 긔공하여 신교사(新校舍)를 건축중이든바 금번十원만일에 준공되여 십일오전열시부터 설립자 권 신부의 사회로 성대한 락성축하식이 거행되엿다。 성모보통학교는 명치삼십팔년 구월일일 창립된 긔명학교와 명치삼십구년오월일일에 창립되엿든 성모녀학교를 소화사년삼월십구일에 병합한후 사립보통학교로 조직을 변경한것으로 현재에는 남자아동 사백십팔명 녀자아동 사백사십오명 합계팔백륙십삼명의 아동을수용하고 직원십사명이 꾸준한 교수를계속하고잇는터이다 이때문에 교사의 협착을느끼여 미국카톨릭선교회에서 총공비 칠만오천원을 투입하여 련와삼층의 "후로아쿠리-트" 철근 "콩크리-드" 연건평(延建坪)오백사십평의 굉장한 교사를 금번에준공한것이다 교사내부는 보통교실입을 직원하나 크라셋으로 교실협착만은 완전히 해소되엿스며 압흐로의 발전을 축복하게되엿다

식이끗난후 주민삼백여명의다과회가잇슨다음 오후한시경 산회되엿다

## 崇專、崇中兩校 創立卅九週記念

【平壤】 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와 숭실중학교(崇中)량교에서는창립삼십구주년기념일인 십일오전열시부터 동교대강당(大講堂)에서 창립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햇고 계속하여 교우회(校友會)추계대회도 개최하여 성황을일우웟다한다

## 孝女李月順에게 感激의同情金

【神戶】 당대의심청 리월순(李月順)의사정과아울러 고향인사들이 위긔일발에서 구출된 본보긔사를보고 지난팔일 이른아침에돈 오원을 손에들고 본보신호지국을차저와서 이돈이 약소하나마출천대효(出天大孝) 리월순양에게 요되지안케면 부처달라는 갸륵한 분이잇다 그는시내 즙합구오처통사정목(市內葺合區吾妻通四丁目)

## 一二錢式収合하야 榮州支局에寄托 文殊公普生赤誠

【榮州】 수해구제의 뜨거운정성은 방방곡곡이 일어남에 따라 경북영주군 문수공립보통학교(文殊公立普通學校)생도일동은 일전식 이전식모아서 한창의편지와 함께 본보영주지국에 기탁하엿는데 그편지를소개하면 천진란만한 어린생도의 뜨거운정성이글자그대로의 형용이다

# 商工振興會의活躍 舊市街街燈設置

## 萬圓드려不日着工

【平壤】 평양부시가 상공업자의중추긔관으로 만드러진 상공진흥회(商工振興會)에서는 제일차수로 총공비일만원으로 남문정(南門町)에서 신창리(新倉里)까지의 도로 좌우에 현대식의가등(街燈)일백팔십개를 가설키로되여 동회상무리사고준의(高竣燮)씨가 분주노력한 결과 벌서 구할이상의 가설비를 징수햇스므로 불원간 공사에착수하게되엿다 가등이 만사의 란이업지안흐나 준공되는때에는 면목을일신하게될것이며 제이과로 서문통(西門通)에서 신양리(新陽里)까지 제삼과로 신창리(新倉里)에서 상수구리(上水口里)에 일으는 도로에도 가등을 설치키로되엿다한다

# 地主舍音懇談會開催 作料減免等討議

## 徐郡守의統制下에

【長湍】 장단군에서는 지주와 사음이 진합하야 간담회라는형식으로 지난구일에 장단원지치원에서 리전군수 통제하에 개최되엿섯는데 금년은 수재、풍재、충재、박재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야 농작물이 전멸、또는 감수가 되엿스니 지주측에서 자진하야 소작료를 본도표준하에 경감또는 면제를 하야소작인에게 억울함이 업도록하야소작쟁의가 전무케하라는 서군수의 열렬한 설화가 잇섯스며 화원측에서 악덕지주에게는 압박한처치를 소작위원회에서 하여달라는 부탁과 동시에 출석치 아니한 대지주에게는 군당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야 본도의방침과취지를설명하야 잡령하게하엿다하며 텁은빗지방에 따당하야 수확기부지에는 세무서에서 조사하야 면세까지하게되리라고한다

## 鐵城靑盟資産을 各機關에寄贈

【鐵原】 철원청년동맹은 창립이래 십오유년동안 지방사업에 활동하여 ...

## 水害救濟 慈善演劇 安、義南支局後援

【安東縣】 안의인쇄 직공친목회(安義印刷職工親睦會)는 창립된지 오랫스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공헌한바가업스므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 그들은 이번 남조선수해구제사업으로 소인극을 개최하기로 준비중이라는데 시일은 오는 십륙일밤칠시라하며 장소는 「신의주국경회관」이라는바 일반은 만히 래참해주기를바란다고한다

## 楊州

**金剛山探勝團募集(第二回)**

▲時日 十月十六日午後十二時議政府出發 十月十九日午後八時半歸着

▲會費 十二圓五十錢(十月十五日까지前納할事)

▲探勝區域 內外金剛、新萬物相、新萬物相、長安寺

▲主催 朝鮮日報楊州支局

## 南市

**家庭料理講習會**

▲時日 十月十五日부터三日間

▲場所 朝鮮日報支局

◇講師 林丙秀先生

◇主催 朝報日南市支局

## 木浦

**全朝鮮男女名唱大會**

▲時日 十月二十三日부터五日間

▲場所 木浦驛前假設劇場

▲出演者 京城、大邱、全州、光州、木浦、群山、其他

◇主催 朝鮮日報木浦支局、朝鮮新聞社

# 愛欲의彼岸 (125)

李光洙 作 金康稷 畵

문임은 불유쾌한 어울이지마는 「오주씨」란 말을 두어번 며 중얼거렷다。

혜련은 괴롭든 마음에 한가지 떠 괴로움을 어드면서、

「언니、언니!」

하고 문임을 흔들었다。

문임은 길게 한숨을 쉬고 잠을 깨엇다。 고개를 번적 들면서、

「혜련이 아직도 안 자?」

하고 물엇다。

문임은 금오잔회 이칭에서 은주에게 매달려서 용서해달라고 울든것、오주가 「못 밋듬」게 집!」하고 무서운 눈으로 노려볼 때에 제가 어떠케나 무섭던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꿈이엇스니 다행이다、햇다。

「언니!」

하고 혜련은 또 바로 안즌채로 문임을 바라보면서 불럿다。

그동안 혜련이가 문임더러 언니라고 불러본 일은별로 업엇다。 장차、어머니라고부르게 될는지 모른다는것뿐아니라、언니라고 정답게 불러볼생각이 나지아니한것이엇다。 정직하게 말하면 혜련에게는 문임이가 밉고 천해보엿든것이다 그러나 이순간에는 혜련의마음은 문임을 가엽게 볼수가잇엇다。

「응、왜?」

하고 문임도 일어나 안젓다。

「지금 밤이 어떠케나 되엿서?」

하고 문임은 머리 마태 굴려 노흔 팔목시게를 차저보더니、

「두 시야!」

하고 놀랏다。

「언니!」

하고 혜련은 한번더 부른다。

「왜? 혜련이 왜애?」

하고 문임은 퍽 오래간만에 저를 정답게 불러주는 혜련을반갑게 생각햇다。

벌서 은밋어미 근성으로 혜련을 미워하고 모함하라는 생각을 맥번 가저던 긔억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언니、아버지허구 혼인마우」

하고 혜련은 문임의 귀 가까이 입을 대이고、

「아모리 생각해보아두 언니가 아버지허구 혼인하는것이 피차에 불행한것만 거테—언니계두 불행이구、아버지계두 불행이구。」

하고 문임의 눈치를 본다。

문임은 아픈데를 찔리는듯해서 말업시 고개만 숙여버린다。

혜련은 좀더 엄숙한 어조로

「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것은 아니요? 언니가 사랑하는이가 따루잇지 안수? 그건 올치안하、언니。 마음 허락한 이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허구 혼인하는것은 올치안하、언니」

하고 문임을 힐웃는 눈으로보앗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혜련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뉘게 마음을 허햇서?」

하고 문임은 엄숙한 낫을 들엇다。

「언니가 생각해 보시우。 나도 잘 알아!」

하고 혜련은 문임의 태도에 불래한 비슷 보엿다。

「누가 그래? 누가 무에라고 그래?」

하고 문임은 여전히 시침이를 떼엇다。

「언니、언니! 언니가 어쩌면 룰속이우?」

하고 혜련은 문임을 노려보면서、

「어쩌면 언니가 나를 속이우? 언니가 은주씨를 사랑하지안코 누구를 사랑하오? 은주씨에게마음을 허락하시지안햇소? 그리고는 날더러 은주씨와 혼인하라고? 언니、언니 회장을 하셧소。 그럼문임 언니는 아니테니。 어쩌면 언니가 나를 속이고 은주씨를 배반하고、그리고 마음에도 업는 늙은 우리 아버지허구 혼인을 하려드시오? 그비밀을 아모도모르는줄 아시지마는 은밀한 속에한것이 들어나지 안흔것이업다고、그게 들어나지아니할줄아시오? 또 설사남이 모르기로니 은주씨는 알테지、하나님은 아실테지、그리고 언니양심은 알테지。 언니가 그러케 사랑하는사람을 배반하고 그리고 마음에 업는혼인을하고 그리고일생에 언니 마음이 편할줄아시오? 언니마음에 아프다는시우친이 일어나것을 내가아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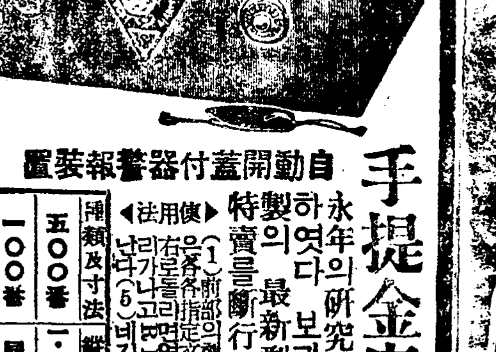
하게선고하드시 말햇다。


滿天下全朝鮮의 同胞가 世界的大制霸를 …
孫基禎 南昇龍 兩選手 萬歲!!
歷史的新記錄 世界的大制霸
文化企業社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을防止하고、即頭頭、눈섭、수염、脇毛、其他人體毛이稀薄한것을만케하고 微細한毛根이라도 털나는藥
フミナイン의發生으로 漸次生長식히오도 禿頭病에依하야 毛가脫落되며 時其脫落을防止하고 또 이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病菌을 殺滅식혀서 그와갓치 털울나게 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혀어럽빠진대●대리꾹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엷보닌대●男女의꾹잇슬곳에털업는분……은그저말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合)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 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即時送藥함。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六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標語品만흠꼭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림질약은 ネオヂリン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 一回一個服用
定價 一圓 二圓 五十錢
賣本舖 木村製藥所

手提金庫界의大革命到來
永年의研究에依하야 理想的大發明은完成하엿다 보라! 手提金庫의王! 最高級鋼鐵製의 最新型弊店專賣品實物宣傳을爲하야 特賣를斷行한다 特賣期間中實費提供


自動開蓋付器警報裝置

| 種類及寸法 | 縱幅 | 橫幅 | 高サ | 重量 | 定價 | 特價 |
|---|---|---|---|---|---|---|
| 五〇〇番 | 一・二尺 | 八・二尺 | 五・三尺 | 一・五貫 | 三〇圓 | 一〇・〇〇 |
| 一〇〇番 | 同 | 同 | 同 | 同 | 二八圓 | 八・五〇 |

送料一圓二十五錢을注文高에加算(鐵道二)振替又는小爲替로 바라며朝鮮日報名記入할것 特約店募集規定書請求는切手五錢要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口座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一五九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營業)認可唯一
特典入學 認可있는講習院은全鮮에서本院外에는업스므로地理上關係로電醫學生의便宜를圖코저特히今期入學者에限하야汽車賃半額을授業料에서免除함
(學則送呈) 認可 高等電醫講習院
釜山府富平町三ノ一七

光榮の純國產
大黑葡萄酒
美味、滋養의精
本品에豐富히含有한葡萄糖果糖들은各種ホルモン을增殖하고 新陳代謝의機能을昂進하고弱體를改造하야强健한身體를만든다
比類업는天與强壯飲料
東京・淀橋・下落合 大黑葡萄酒株式會社

中央館 電話二〇二番 永樂町
劇團豪華版第一回公演 第三週
十月十日낫부터十二日까지三日間
今週는短期週間으로三日間밧게만 다
名劇의吟味를하소서
悲劇 벙어리냉가슴 一幕
사랑의鐘소리가오너라光明을보지못하는鐘의悲哀…
人情劇 光明을일흔사람들 二幕
北時雨戀の旅笠
闇の銃聲
微笑む惡魔

東洋劇場
急性戀愛病 一幕二場

經濟解說

# 小運送의 統制

## ⑥ 朝鮮非合同業運命

李 [illegible]

×

朝鮮運送株式會社가 創立된 後 全朝鮮運合參加店支部長會議를 四月六日에 열고 代行作業에 關한件 運送合同에 關한件 等을 附議決定하얏고 株式出資의 參加는 增資할때 行하야 二百六十萬圓全額拂込의 會社를 創立하고 別途四十萬圓의 借入金을 運轉資金에 充當키로 決定하얏는바 그席上 鐵道當局으로부터 朝運에 [illegible]을 附與하겟다는 指示가잇섯다。

이러한 經緯에 附與된 朝運에 對抗하야 反運合派로 通運同盟會、朝鮮運送同盟會、鮮運協會의 [illegible]가 成立되고 宣傳戰이 猛烈하야 四月中旬에는 非合同派의 數가 合同派의 數를 凌駕키에 至하얏섯다。

이가려 合非兩派의 競爭은 鐵道局의 高壓的 絶對運合援助에 依하야 運合參加店의 衆議運送(株式引受)는 四月二十日까지에 七百五十七店이 調印케되는 一方 運合에서 脫退한 運送店과 運合不參加店과 非合同派는 三派(前記三團體)聯合會를 組織하고 「運合反對」의 陳情書를 總督에게 提出하얏다。

×

그러나 朝運側은 이에 不拘코 四月二十五日 增資總會를 열고 增資額은 參加店의 衆議으로 擔出하야 百二十萬圓으로하고 運送에게 附하야 五月十二日 臨時總會에서 株式讓渡를 禁止하얏다。이리하야 資本金二百二十萬圓(其中拂込金百六十五萬圓)全額拂込의 朝鮮運送會社가 完全히 成立케되엇고 五月十六日主要驛所在店 四十一店이 一齊히 業務를 開始하얏고 鐵道局에 指定運送取扱人制度適用을 申請한데 對하야 非合同派는 拓務省方面에 猛烈히 反對運動을하얏스나 六月二日大村鐵道局長은 河合朝運專務를 招致하고 「朝運의 參加店及 局線全驛을 業者의 七割로서 그業績이 六割에 達하야 鐵道局의 規定을 完全히 具備하얏다」라는 理由로 朝運을 指定運送人으로 決定하고 左記 諸項을 附與하얏다。

1、全朝鮮各驛에 所在業者의 獨占經營
2、小口扱混載貨物 代行作業
3、全朝鮮各驛所在營業所
4、發送貨物運賃立替
5、無賃乘車證交付
6、手小荷物集配代行
7、貨物自動車營業
8、貨車積卸
9、人夫供給
10、貨車入換

×

一方運送業者新三派聯合會는 大會를 열고 公正嚴正한 鐵道政策을 要求하고 出席者 二百八十餘名이 大擧鐵道局에 至하야 局長과 會見코자하얏스나 [illegible]

그러나 運送側으로서는 어데까지 鐵道局方針에 反하야서는 朝運과 競爭을 繼續할 수 업게되어 結局은 運送界의 中立業者를 引率하고 朝運에 [illegible] 어가게 되엇스나 그이듬해 昭和六年七月에 通運과의 妥協이 成立되어 朝運은 百三十萬圓을 增資하고 同年十一月三十五萬圓 昭和九年一月十五萬圓을 增資하야 資本金四百萬圓 [illegible]

(계속)

# 第二回米作豫想

# 相當減收難免

## 京畿、黃海、江原、忠南、全南

## 五道에 稻熱病激甚

朝鮮米收穫 第二回豫想은 來十一月末現在로써 各地에서 取調를 進行하고 十一月十日 電報로써 報告하야 十二日頃 發表할豫定인데 第一回豫想에잇서 一千九百九十四萬石으로 超記錄的의 數字를 豫想하던收穫高도 其後의 意外의 天候의 不順으로 秋天候의 不順으로 一千五百萬石以下로될狀況이라한다

一、稻熱病의發生 稻首稻熱病의 發生은 京畿、黃海、江原、忠南、全南의 五道에서 全面的發生 等에依하야 第二回豫想은 第一回豫想에比하야 更히減少가豫想되어 例年의 調査方法에依할時는 今年의朝鮮米收穫은 一千五百萬石以下로될狀況이라한다

內鮮의 賣買는 大體豫定대로 共販市場에 搬入되는中이나 日本內地人釜山業者는 依然小製絲工場에 委託乾繭의 名目으로 自由賣買하는것이 相當量에 達하고잇는바 此等密賣買는 現法規로는 取締키가 困難하야 防止方法이업는 모양이라한다

# 水稻優良種

# 普及狀況

## 穀良都가斷然筆頭

農林局에서 水稻品種別普及狀況을 昭和十年度에 對하야 調査한바에依하면 一萬町步以上의作付를가진것이 二十品種으로 五萬町步로부터六十萬町步以上이며 그筆頭는 穀良都로서 三十八萬二千町步 銀坊主가 三十一萬九千町步인바 最近五個年間의 狀況을보면 漸增傾向이것은 銀坊主、陸羽一三二、赤神力、福坊主、陸內早一二○의各種이오 就中銀坊主와 如함은 一躍五個年間에三倍、陸羽는 百七十三倍인데反하야 漸減傾向을 示한것은 穀良都、雄町、日出、早神力、龜尾等의 各種이라한다。

이제 一萬町步以上의 作付面積은 如左하다(單位町步)

| | |
|---|---|
| 穀良都 | 三八二、五六六、八 |
| 銀坊主 | 三一九、九三二、五 |
| 陸羽一三二 | 一三四、九○九、七 |
| 多摩錦 | 七四、五三一、三 |
| 赤神力 | 六○、二四一、八 |
| 龜尾 | 四四、○○三、二 |
| 愛國 | 三六、一六八、二 |
| 福坊主 | 二四、八六九、七 |
| 山口神力 | 二四、一八九、五 |
| 中神力 | 二二、四八三、八 |
| 雄町 | 一三、○八三、○ |

# 十五日銀行休業

十月十五日은 京城神社國幣社에 御例祭執行일으로 京城組合銀行은 奉祝의意를 表키爲하야 同日臨時休業키로決定하얏다

# 朝取證券部도

## 十五日前後場休會

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十二日正午商議員會를 開催한結果 來十五日은 京城神社祭禮로前後場共히 立會를中止하고 奉祝意를 表하기로되엇는데仁川의 米豆部는 平日대로 立會하리라한다

# 府內倉庫在荷增加

京城手形交換所調査=九月末京城府內七倉庫의 貨物出入狀況은 [illegible]

本月入庫 一六三、六○五 價數 九一、三七六 金額
本月出庫 一七、一三二、一二 [illegible]
으로結局月末現在高는十一萬八千五百九十四個二百九十二萬二千六百二十九圓이오前月末에 比하야 九千五百四十七個金額三十六萬一千八百七十八圓의 各增加를示하얏다

# 京城商工組合

## 聯合會創立總會

京城商工組合聯合會創立 第一回總會는 十一日 午後三時四十五分부터 京城商工會議所第一會議室에서열고 出席代表는約百二十餘名이엇는데

# 米移出續增

## 累計九百二十萬石

十月上旬의 米移出高는 十二萬四千九百九十九石으로 昨年同期의 九萬三千二百十四石에比하면 三萬一千七百八十六石增이며 昨年十一月以降移出累計는 九百十九萬八百六十八石으로 比前年同期六十八萬石增이오 또本旬의

粟輸入累計百二十九萬石

粟輸入高는 九千九百九十九石으로 昨年同期의 四千二百九十一石에比하야 五千七百八石增이며 昨年十一月以降輸入累計는 百二十九萬三千百二石으로 比前年同期二十四萬餘石의增加이엇다

# 自由賣買

## 防止取締困難

### 京城繭市場

京城의 自由繭市場廢止後의 府內繭의 賣買는 大體豫定대로 共販市場에 搬入되는中이나 日本內地人釜山業者는 依然小製絲工場에 委託乾繭의 名目으로 自由賣買하는것이 相當量에 達하고잇는바 此等密賣買는 現法規로는 取締키가 困難하야 防止方法이업는 모양이라한다

# 經濟界消息

○土木協會評議員會=京城土木建築業協會에서는 十二日午後一時부터 同協會事務所에서 開催하고 株主配當은 前期同樣七分据置模樣이라고

○高山東拓總裁 十一日退院=東拓高山總裁는 病으로 大學病院에 入院加療中 十一日退院 同日午後十時五分發歸東하얏다고

○米穀總會=米穀倉庫會社에서는 來三十一日 午前十時부터 同社樓上에서 第六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할터인데 今期에重役全部任期滿了이나 모다重任되리라고

組合聯合會加入團體、百十一組合、口數百五十九口、代表者數百五十七人、加盟者總數八千八百五十四名

의큰 團體인바 役員選擧로 議場이 紛糾타가 結局

▲會長 石原憲次郞 ▲副會長 李東善 前田米三郞 ▲幹事長 藤貞市

外幹事 會計役 監查役 顧問 相談役等을 選擧하얏스나 石原氏會長辭意表明으로 도로혀 이잇서 去就未定인채로 六時二十分 總會를 閉會하얏다한다

# 朝銀在滿支店撤收와

# 監督權還元問題

## 副總裁後任決定을注目

朝鮮銀行은 十二月一日부터滿洲로부터 完全히손을끈어 在滿支店을 모다撤收하고 이와同時에 大藏理事動이 發表될터인데 이것을機로 朝鮮銀行은 그業務가朝鮮內에局限되는만큼 그機構問題에對하야

一、現在大藏省에잇는 監督權을 總督府에 還元할것이나

一、依然大藏省이 監督權을가질 것이나

가重視되는데 이오 이監督權問題는 朝鮮內金融統制上 重大한 關係가잇는만큼 그決定如何에對한推測이 區區한데 副總裁松原純一氏는 近間新任發表될 某特殊銀行總裁候補로서의 確定的으로 同行創立의具體的으로 發表되에 따러 現職을 退任키로되바 同氏後任에는 東京方面消息으로는 現大藏省 駐英財務官 富田勇太郞氏로 될것갓고 同氏가 故障이 생기면 現朝鮮銀理事 松田秀雄氏로 되리라하야 大藏省監督權不動을 意味하는 一方 朝鮮側으로서는 監督權總督府還元說

撰下에 그後任에 林財務局長의 朝銀入이 內定되어 今月中에는 財務局長의 勇退가 實現되리라 傳하는等 觀測이 不一하야 財界에서는 注目코잇다한다。

# 對外爲替 (十二日)

【東京電話同盟】

東京爲替

| | |
|---|---|
| 對米 賣 | 二十八弗八分五 |
| 對米 買 | 二十八弗四分三 |
| 對英 賣 | 一志二片十六分一 |
| 對英 買 | 一志二片十六分三 |

大阪爲替

| | |
|---|---|
| 對米 買 | 二十八弗八分五 |
| 對米 賣 | 二十八弗四分三 |
| 對英 買 | 一志二片十六分一 |
| 對英 賣 | 一志二片十六分三 |

# 重要商品界事情

## 米、印棉市況

【紐育十日發】 리버풀入報의小張에도 不拘하고 活潑한 緊張物에 市勢는 低落하엿다 實需側은 賣物을 잘消化하얏스나 有力한 買物이 업스므로 市場의 軟勢를 助成하고잇섯다 또 止場때에는 共販側의 多量의 賣物이 잇섯다 產地의 天候는 東部에 降雨가잇서出廻를 幾分 阻害한것을 除하고는 他는 다晴天이엇다 大 引市勢는 昨日에比하야 現物 六포인트低定期 六포인트乃至 十포인트低이엇다

【봄베이十一日發同盟】 今週의 봄베이棉市場은 米、棉公報의 發表를 압두고 處分이 主가 되어 多少引緩하엿다 또 이와同時에 弱氣側은 市場의 低落을 助長한과가튼 動向을 보엿다 輸出注文은 相當하잇서 日本側은 規則的인 買付를보엿다 라카시아는 카라치로부터 買氣를 보이고잇스나 大陸側은 不活潑하다

## 洋灰價格昂騰

朝鮮內洋灰假協定은 十二月本協定實施까지 今月一日부터三個月間各社協議로 實施한結果 價格도 亂立發賣當時 一時暴落하던것이 最近은 八十九錢까지 回復하야 仁川沖渡한 一袋七十錢台를突破 回復하야자못 順調로 取引이行한다 이대로가면 本協定實施까지에는 本協定의 協定價格인 一圓九十五錢에 回復되리라한다

勿論 和棉向은 良好한 實買가잇다고 報道되엇다 棉樹生育은 一般으로 良好狀態에잇서 一部地方에 降雨不足을 들리는데 不過하다

# 株式

## 續騰後에下押

### 商況 〔十二日〕

「秋에 만만어질편이냐?」

前場 鍾新高 再昨前場에는 東新百三十八圓六十錢 日產八十四圓四十錢 鍾新百八十圓二十錢等으로 모다高價로 大引하엿는데 今朝寄付도 亦是東新百三十八圓八十錢 日產八十四圓七十錢으로 高寄하엿스며 鍾新은又復一躍百八十一圓三十錢인 一圓十錢高로寄付하엿스나 高價에는利喰이잇슬뿐外라 警戒模樣으로모다小押하야 東新百三十八圓十錢 日產八十四圓二十錢 鍾新百八十圓九十錢에 大引하엿는데 實은 比較的 閑散狀態를 呈하엿다

# 東新의將來性

近日의株式市場은 鍾新獨舞臺의 觀을呈하야 今朝에도 百八十一圓三十錢으로 벌서 百八十圓을 突破하야 上向하는傾向을 보이는것은 注目되는데 이에比하면東新은 百三十七、八圓臺에서 保合하면서 高價를보이고는 잇스나 그後退하는 頭重伸悩의 態이바 이는勿論 取引稅의未發表 政局前途에對한 一抹의 不安等으로 警戒되고잇는點도不無하나 그보다도 近日鍾新을爲始한 紡績株의 買氣가 熾烈한데 買株를 東新에 實케하는면이 만허 더욱 東新의伸悩를 자아내고잇는것이라 고한다 勿論財界에는 不透明한 材料가 만흐므로 警戒人氣가 떠나지안코나 結局이는 目前에 終始하고 將來性이나 大局觀은 잘알면서도 委縮되어 勇敢히 實行에 옴기지못하는때문이니 二二六事件以來 모든部分에잇서서 一大飛躍을 强調하고잇는것이 日本財界로서 그將來性乃至 發展性을 생각한다면 目前에 부들니어 疑心하고잇슬때가 아니고 前進함이 可하다 將來性을 疑心치안코면서도 現實로는 不安을 가지는것이 現今의 市場의 空氣인지라 그까닭을 알수업스나 이不安空氣가 除去되는날이면 그明明性은 飛躍性을 相伴하리라고 强氣側은主張한다

# 帝糖逆轉反動=金本位

물랐던帝糖株는 逆轉하게 되엇는데 勿論이는 오래警戒한 問題이나 金本位崩壞는 이미豫測되바이므로 그다지悲觀할것도 업다 오히려 砂糖式의 活躍을爲해서는 好材料이나 帝糖은 엽서 오래買進되엿대로된 나머지이므로 再活躍은 期待키어렵고 이제는 逆轉하야 反動時代로들어갈것이다 그래서 보아 過讓가엇슬것이다 그래서 이反動의 限定價를 七十五圓還로 보는이가잇다

# 後場少押

後場은 鍾新百八十圓五十錢 東新百三十七圓六十錢 日產八十三圓二十錢으로小押大引하엿다

鍾新 一八○、三○ 一八○、三○ 一八○、五○ 一八○、七○ 一八○、六○ 一八○、九○ 一八一、一○ 一八一、三○(引) ▲東新 一三八、八○ 一三八、六○ 一三八、四○ 一三八、一○ 一三七、九○ 一三七、八○ 一三七、六○(引) ▲日產 八四、七○ 八四、五○ 八四、三○ 八四、二○ 八三、二○(引)

# 紡績株만活躍

三倍增資을 期待되는 鍾新이 連日 暴騰하는바람에 紡績株는 三倍增資 決行할것으로 豫想하고 一擧十五圓幅의 狂騰을 보엿스므로 오랫만에 好採算이된 紡績株는 東紡을 爲始하야 一齊暴騰하야 可謂 紡績株時代를 現出하엿다。 그런데 이는 法人에게 重課하는 增稅案에 對하야 各各 增資을 輕減할方策으로 增資를 行할것으로보고 이미 日紡의增資로 刺戟되어 最近의 棉業를 好轉과함께 紡績株의 買氣가 熾烈을 極하게되엇다。 이紡績株의 買物에는 主力株의 實繁가 잇다고는하나 이活躍이人氣에 好刺戟을 주고 잇는것은 事實이다

# 經濟寸鐵

○男爵부터 이래서야 될힘인가 部大臣會長이너 副會長이니 選擧로 議場紛糾이엇다고

○말성만흔 京城商工組合聯合會創立第一回總會에서는 役員選擧로 [illegible]

#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六六、五○ ▲東京瓦斯 一六、二○ ▲滿洲炭業 一六、九○ ▲日本曹達新 三二、四○ ▲大日本紙新 三三、○○ ▲全鮮鑛業 一二、三○ ▲東亞土木 一七、○○ ▲人造肥料新 二○、三○ ▲三菱重工業 二七、八○ ▲도쿄지鑛業 一五、二○ ▲人造羊毛 三、三○ 取引高 一八○○枚

#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米貨債는 課稅不安도 漸次 解消된感이잇서處分後의 一服과함께 思惑的으로 買入側의 退却을 誘致하는바되어 米貨六分半 五分半共히 三圓反撥하야 課稅率發表待의 姿勢가되엇다 內國債는 變方傍觀으로 靜化되었다 保合이엇다 ▲甲五分 不申 ▲一回四分 一○○、六○ ▲二回四分 不申 ▲佛貨 一九六、六○

# 期米

## 底迷圈內

## 彷徨

前場反高 再昨後場 阪地二十八圓三十九錢止와 共히 二十六圓三十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休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二十八圓四十二錢인 三丁高를 投하고 二十六圓二十七錢인 三丁反落으로 場을 始한後 阪地四十四錢의 四番同價로 結局 五十七錢에 止場함을伴하야 入節五十錢까지 再騰하엿다가 四十四錢에 場을止하엿다

#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六圓三十錢으로 場을始한 後場은 二十一錢인 一丁低로 場을始한 다음 一節三十二錢으로 結局四十錢에 止場하엿다

# 底入의鍛錬?

## 一落後엔必高

再昨後場의 形勢는 阪地二十八圓四十錢에 止場 ...

# 米

高價에서 六百五、六十丁이나 慘落을거듭한後이라 軟派로도 賣入的行動을 加하지 안는모양이야 ▲買方主力側인 田中貞一派가 東京山崎의應援을어더 얼마를 擁土重來의氣勢를 올리고잇스나 利用할만한 材料가 업스니 참아리 幾割을 死守하는밧게 업슬모양 ▲그러나 田中貞의 家戰이 最後一刹에 敗北을 當할지언정 中途 損退는 아니하리라고 한다▲果然 損退하는때는 阪地二十七圓도 潰裂하게될모양이니 田中貞의 算盤도잇슬터이지

▲財界前途의 大局을 觀察한다면 市勢도다시 大勢株로 集中 ▲群小株가 犧牲되어 邪道로갓치 人氣를刺戟하고 잇는것은 事實 ▲그러나 鍾新로 伸悩 ▲그러나 이것이 市場의 實繁가 만큼 東新日產이 出現 ▲紡績株買物에는 主力株 齋暴騰하야 바로紡績株時代를 紡績株의 이름을 가진것은 一 ▲鍾新이 오르는바람에

# 六感

# 自營法압두고

## 强弱見解相異

本年產米에 對한 米穀自治法의 發動은 必至할것으로 一般이 旣히 豫想하는바인데 當局의 標準米로의 最低公定價格은 二十六圓廿二錢에 該當하고 最低公定價格의 一割上値는 二十八圓七十錢이며 最低公定價格과 一割上値와의 中値價格은 二十七圓四十六錢으로 軟派는 此에 對하야 目下 堂島米價二十八圓七十錢인 即 一割上値를 天井으로보고 廿八圓四、五十錢은 하죽도 賣叩할 餘地가잇다고 主張하며 强派는 此에 反하야 大體 自營法實施는 生產者를 擁護하는 高米價政策에서 나온것이므로 堂島米價廿八圓臺에는 買進할 妙味가 잇슬뿐아니라 物價指數로 보아서도 米의 單獨 落되어 大豊作의 行動을 旣히 一巡한後이라 賣叩할 餘地가업스며 米穀自治管理法이 發動하는 此際이므로 深入落도 또한 期待키 難할 模樣이다 實로 昨今의 步調가 떠러질곳하고도 떠러지는 그光景을보면 大體底入의 鍛鍊으로보지안흘수업스며 딸아서 押目買가 得意가될가한 商談도엇지 아니하다

# 今日財界 (十二日)

◆米

| | 今日止 | 比前日 |
|---|---|---|
| 仁川期米 先限 | 二六、三○ | 三高 |
| 大阪期米 先限 | 二八、四○ | 六高 |
| 京城三等米 一石 | 二七、二○ | 三低 |
| 正租(仁川)一等 | 二二、七○ | 不變 |

◆市中金融

| | | |
|---|---|---|
| 一亓 貸 | 一分貸 | 一分貸 |
| 一亓 借 | 十錢三厘 | 十錢三厘 |

◆株

| | 今日止 | 比前日 |
|---|---|---|
| 朝取新 | 二二三、○○ | 二高 |
| 東新 | 一三七、六○ | 三低 |
| 日產 | 八三、二○ | 三低 |
| 大阪綿糸 | 二九五、○○ | 不變 |
| 大阪棉花 | 五三、○○ | 高低 |
| 大阪人絹 | 五二、一五 | 不變 |
| 大阪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 二百二十 | | |

◆綿絲

前記 [illegible]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 | 賣方 | | | 買方 | |
|---|---|---|---|---|---|
| 當限 | [illegible] | | | [illegible] | |
| 中限 | [illegible] | | | [illegible] | |
| 先限 | [illegible] | | | [illegible] | |

低落을 꾀키 爲한 此際임으로 資活動時代는 新米하엿다고 또 한主唱을하다 이와가리强弱의見解가 各自의一理가잇는바는아니나 안홉로 米出廻期가 닥처오는今日에잇서 上放할것이라고는 維키難하다

# 木浦軟化

持米側의 低落的態度에 氣分賣物과 日本內地賣行杜絶에 氣配도 軟化되엇다 ㉢三等二七、九○ 一等白米二八、二○ 四等二七、一○ 一等白米三、○○

#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當限買方의 投物이不絶하나 先限은 利喰과 强氣의 買乘으로 一、二、三、限의 優勢實을消化하엿스므로 買叢되는터인데 期近의 投物은 續出이엇다

◆賣方 地場利喰 東京側 ◆買方 地場强氣 京濱側

今朝主要賣買는 如左하다

# 各地正米

# 京城軟調

一息商狀에 市況은 閑散場面이나 氣配는 軟調이엇다 ㉢三等二七圓二○錢 四等二六圓九○錢 一等白米二八圓五○錢

# 仁川軟調

新低價로 떠러진끄레 今朝는 賣方이 모다傍觀으로 一息商狀이나 氣配는軟調이엇다 ㉢三等二七、二○ 四等二六、九○ 一等白米二八、四○

# 釜山反落

日本內地賣行中絶과 天候好順에 持米側의 嫌氣投物이 出現하야 唱價는 又復三十錢의 反落을 演하얏다 ㉢三等二七八○ 四等二七五○ 一等白米二八、二六

# 大邱暴落

休日後의 今朝는 奧地로부터 相當히만흔 實物이 現出하엿스나 買方은 依然 拱手傍觀으로 氣配 一擧四十錢暴落을 演하엿다 ㉢三等二六、八○ 四等二六五○ 一等白米二八、一五

# 群山暴落

奧地로부터 逐日賣物이 旺盛을 呈하나 買方은 [illegible]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 米 光 仁川 康益夏商店 金益證券株式會社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京城黃金町 柳來恒取引店

株式 賣買 東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 金融 十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 米穀 十二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 商品 十二日

◆京城綿糸布市價 ◆京城綿布 ◆燃油沖價 [illegible]

◆朝鮮粕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紐育綿花期米 [illegible]

# 株式 十二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算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大阪長期 [illegible]

# 期米 十二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木浦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 地名 | 種類 | 一等 | 二等 | 三等 | 等外 |
|---|---|---|---|---|---|
| 京城 | 穀良都 | 八一○ | 八○○ | 七九○ | |
| 仁川 | 銀坊主 | 八○○ | 七九○ | 七八○ | |
| 大邱 | 穀良都 | 七九○ | 七八○ | 七七○ | |
| 釜山 | 穀良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群山 | 銀坊主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木浦 | 陸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鎭南浦 | 陸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新義州 | 陸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元山 | 龜尾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咸興 | 陸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馬山 | 穀良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平壤 | 陸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